metro
메트로 2014년 8월 18일 월요일 제3037호 www.metroseoul.co.kr

해미성지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시아 주교들을 만나기 위해 17일 오전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성지를 방문, 신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오미w

경기 부양 도움… 美는 인상 추세

Issue & View
금리 인하 '빛과 그림자'

[illegible]

2%대 예금상품 없을 듯 대출늘어 주택시장 온기

기준금리가 2.50%에서 2.25%로 0.25%P 낮아졌다. 향후 금융·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어미 예상된 결과였기 때문에 금통위의 발표 직후에도 금융시장은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0.86포인트(0.04%) 오른 2063.22에 마감됐다. 원·달러 환율은 예상대로 금리가 인하되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전일대비 7.7원 하락한 1021.2원에 거래를 마쳤다. 그러나 앞으로에 대한 기대는 크다. 한은의 이번 결정으로 내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정부와의 정책 공조도 어느 정도 이뤄지게 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빚이 있는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면서 "급격하게 떨어진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1%대 초저금리 시대 온다

물론 기준금리 인하가 긍정적인 효과만 기대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금리 연러 여파로 주요 은행들은 예금·대출금리를 잇따라 내릴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이미 '국민수퍼정기예금' 금리를 지난 5월 말 2.54%에서 이달 13일 2.29%로 0.25%포인트 낮췄다. 농협은행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폭인 0.25%포인트에 맞춰 예금 기본금리를 낮출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각종 예·적금 상품의 수신금리가 내려가게 된다. 우리은행은 와 느너 정기예금 금리를 2.7%에서 2.5%로 0.2%포인트 내리는 등 기준금리 인하를 미리 반영해 금리를 조정한 상태다.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에서 1년 만기 기준 연 2% 중반대를 넘는 정기예금 상품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대출금리도 하락이 예상된다. 은행권 대출금리의 경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은행 수신금리를 가중 평균해 산출하는 코픽스(COFIX)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57%로 매달 역대 최저치 경신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전체 가계가 받는 타격도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가계 이자소득은 43조원으로 이자소득이 총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육박했다. 이자소득 감소가 가계소득 감소와 소비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추가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은행들로서는 연 2% 예금 상품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로 볼 때 연 1%대 예금 시대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시장 꿈틀… 대출 증가

한은의 기준 금리 인하로 주택대출의 대표적 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일괄적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경제지표의 기준점이 되는 주택시장도 꿈틀거리고 있다.

실제 은행권의 주택대출은 지난 6월부터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지난달 주택거래량도 전년 동월과 견줘 94.0% 급증했다. 지역, 주택 종류와 가격, 대출 기간 등에 따라 50~70%로 차등화됐던 LTV는 이달부터 70%로 일괄 적용되고 있다.

서울 지역에 대한 DTI도 종전에는 50%였으나 인천·경기 지역과 같은 60%로 높아졌다. LTV·DTI 완화로 같은 사람이 같은 주택을 사더라도 대출 여력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겼다.

금리 인하는 완화된 LTV·DTI를 바탕으로 대출을 더 늘리는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

LTV 50% 기준으로 5억원 짜리 집을 살 때는 2억5000만원을 빌릴 수 있었지만, 이를 70%로 높임으로써 1억원을 더 빌릴 수 있게 됐다. 금리가 0.25%포인트 떨어지면 3억5000만원에 대한 연간 이자 부담은 87만5000원 줄어든다.

◆내년 중반 美 금리인상 예상… 엇박자 정책

세계 금융시장을 이끄는 미국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마치고 금리 인상쪽으로 통화정책의 방향을 돌리려는 것과 엇박자로 가는 것도 부담이다. 급격한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이들 국가보다 일정 수준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서 추가로 금리를 낮추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대개로 미 연준이 내년 3분기 이후 정책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HSBC와 크레디트스위스는 현재 제로(0~0.25%)에 가깝게 운용되는 연준의 정책금리가 내년 3분기 0.50%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UBS와 씨티그룹은 인상 시기를 3분기로 내다봤다. 특히 금리가 한 번에 0.7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IB들은 최근 미국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조기 인상론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내년 중 기준금리 인상을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반대로 인하를 했다"며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를 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교황 특별판 배포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하는 시복식이 열리는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메트로신문의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특별판을 읽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프란치스코 교황 시복식~17일 행사 이모저모

기차타고 대전, 세월호 가족에 세례

프란치스코 교황은 4박5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18일 오후 중국길에 오른다. 교황의 방한 기간 중 이동거리는 1000㎞에 달하며 한국에 머문 시간은 약 101시간이다.

◆ 헬기NO, KTX타고 대전행

지난 15일 교황일정 중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집전이 있었다. 당초 전용헬기를 이용해 대전으로 이동할 계획이었으나 당일 오전 헬기가 아닌 KTX기차 편으로 대전역에 도착했다. 교황방한위원회 대변인 허영엽 신부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는 교황의 뜻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황과 함께 한 '노란 리본'

교황이 노란 리본을 단 것은 15일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직전이었다. 이날 교황은 미사에 앞서 세월호 사고 생존 학생과 유가족 등 10명을 제의실 앞에서 직접 만났다. 이 자리에서 노란 리본과 팔찌를 선물받은 교황은 이후 곧 공식 일정 자리에 노란리본을 달고 나왔다.

◆숫자로 보는 시복식

지난 16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화문광장에서 역사적인 시복미사가 거행됐다. 경찰 추산 운집 인파만 80만명에 달했다. 이중 사전 신청한 신자는 20만명이다.

바이트진로에서 제공한 석수는 22만명이 마실 수 있는 양이 동원됐지만 30분만에 동이 났다. 한국 천주교의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은 시복식 참석자를 위한 모자 50만개와 교황 수행원 등이 사용할 우산 1000개를 제작 배포했다.

당일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에서 1만여 명이 투입됐다. 경찰 기동대와 금속탐지기 근무자만 2000명, 개인 총기 6만5000여 정은 경찰서에 임시보관됐다. 25개의 응급의료소가 설치됐고 의료 인력은 225명, 119구급 순찰팀은 2인1조로 50개조가 편성됐다.

◆광화문인근 편의점 매출 급증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복식이 열린 16일, 100만명의 인파가 광화문에 모여들면서 인근 편의점 매출도 전주보다 껑충 뛰었다.

CU(씨유)의 경우 이날 광화문 인근 점포의 매출은 전주에 비해 103.2%가 올랐다.

세븐일레븐의 인근 3곳과 GS25의 인근 6개 매장 매출은 전주보다 101.5%와 8~16배씩 늘었다. 또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직전이 열린 대전 월드컵경기장 인근 세븐일레븐 점포 매출은 전주 대비 58.2% 늘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 세례

세월호 사고의 희생자 고 이승현 군의 아버지 이호진 씨가 17일 오전, 주한 교황대사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세례를 받았다(사진). 세례명은 교황과 같은 '프란치스코'다. 한국 신자가 교황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25년 만이며 단독 세례는 국내 최초다.

교황 방한 4일째 바쁜 행보

시복미사 성료 ·17일 아시아 주교들과의 만남, 오늘 출국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일정도 이제 막바지다.

방한 나흘째를 맞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17일 충남 서산에서 대부분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오전 11시, 교황은 해미성지 내 해미순교기념전시관에서 '아시아 주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한국 천주교 주교단 15명, 아시아 각국에서 온 추기경과 주교들 50여 명이 참석했다.

교황은 이날 연설을 통해 '진정한 대화'를 언급하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황은 "공감하고 진지하게 수용하는 자세로 상대방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 수 없다면 진정한 대화란 있을 수 없다"라며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의식하고 다른 이와 공감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대화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교황은 오후 4시 30분께 해미읍성으로 자리를 옮겨 아시아청년대회(AYD-KYD) 폐막 미사를 집전했다. 미사는 아시아 지역 23개국에서 온 6000여명의 청년들과 아시아 주교단 50여 명,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개방됐다.

이에 앞선 지난 16일, 교황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찰 추산 80만명이 운집한 가운데 역사적인 시복미사를 통해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를 복자로 선언했다.

오후에는 충북 음성에 있는 꽃동네로 향했다. 머리 위로 하트를 만드는 등 교황의 소탈하고 격없는 모습은 이곳에서도 이어졌다. 꽃동네 가족 200여명과 만난 교황은 몸이 성치 않은 장애인, 버려진 어린 아이, 뇌성마비 중증 환자 등 꽃동네 가족들은 한명 한명 찾아가 모두와 손을 맞잡고 인사했다.

방한 마지막 날인 18일, 교황은 서울 명동성당에서 오전 10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집전한다.

이날 미사에서 교황은 강론을 통해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맨 앞줄에 앉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3명을 비롯해 쌍용자 해고 노동자와 제주 강정마을 주민, 밀양 송전탑 건설 예정지역 주민, 용산 참사 피해자 등 갈등과 대립으로 상처받은 이들이 초청됐다. 미사에 앞서 7대 종단지도자들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

미사 집전 후 오후 12시 45분, 서울공항에서 간단한 환송식을 가진 교황은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출국한다.

/김학철기자 kimc0004@metroseoul.co.kr

광화문 시복미사 경찰 추산 80만명의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하는 시복식 미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남경필 아들 軍 가혹행위 가해자 파문

남 지사 "피해자 가족에 사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한 부대에서 가혹행위 가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남 지사의 아들인 남오 상병은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후임 A 일병을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 상병은 B일병에게 뒤에서 껴안거나 바지 사이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 상병은 가혹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성추행 혐의는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남 상병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남 지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를 본 병사와 가족분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남 지사는 "제 아들은 조사결과에 따라서 법으로 정해진 대로 응당한 제벌을 달게 받게 될 것"이라며 "아버지로서 저도 같이 벌을 받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밝혔다.

/유대혁기자 [illegible]

北 을지프리덤훈련 또 비난 "선제타격" 위협

북한이 17일 한미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거듭 비난하며 "선제타격을 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올해 강행되는 UFG 한미 합동군사연습은 맞춤형 억제라는 기만적인 외피를 쓰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적인 선제타격을 노린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이라며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맞춤형 억제전략을 실전에 적용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선전을 포고해온 이상 우리식의 가장 강력한 열선 선제타격이 우리가 선택한 임의의 시각에 무자비하게 개시된다는 것을 다시금 천명한다"고 밝혔다.

또 "강력한 물리적 공세가 연속 취해지게 된다"며 "군사적 대응도 침례적, 연례적으로 더욱 강도 높게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도 위협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뉴스&뉴스

박지원 방북 DJ 서거 5주기 조화 받아

●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전 의원 등 5명이 17일 오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아 북한이 전달하기로 한 조화를 받기 위해 방북했다.

이들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북측 인사들과 환담한 뒤 오후 늦게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귀환했다.

국정원 직원에 기자증 발행 관행 폐지

● 국회사무처가 국가정보원 직원 등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게 기자용 임시취재증을 발급하던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7일 국정원 직원이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원 질의자료 촬영 논란에서 비롯됐다.

김종덕·강신명 등 릴레이 인사청문회

● 국회는 이번 주 18일 임현수 국제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19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21일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후보자들은 아직 낙마 사유가 될 만한 큰 흠결이 발견되지는 않은 상태여서 청문경과보고서가 무난히 채택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석촌지하 구멍’ 흙은 어디로…

15톤 트럭 140대 분량… "터널 공사 흙과 함께 유출 가능성"

서울 석촌지하차도에서 발견된 거대한 구멍의 흙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하다. 문제의 구멍은 폭 5~8m, 깊이 4~5m, 길이 80m의 엄청난 크기로 흙의 양만 15t 덤프트럭 140대 분량이다.

11명의 전문가로 구성한 서울시 조사단은 1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문제의 구멍은 자연발생이 아니라 지하철 9호선 3단계 터널 공사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추정했다.

흙의 이동 경로와 관련해 조사단은 일단 흙이 공사중인 터널로 들어갔고, 이후 지상으로 배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공사가 터널을 뚫으면서 나오는 흙을 지상으로 정기적으로 배출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유입된 흙도 함께 내보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석촌지하차도 아래서 실드(Shield) 공법으로 터널을 뚫었다. 실드 공법은 원통형 기계를 회전시켜 흙과 바위를 부수면서 수평으로 굴을 파고들어 가는 방법이다.

조사단은 동공이 생긴 곳은 충적층(모래와 자갈로 구성된 연약지반)으로 터널 공사가 매우 세심하게 진행돼야 하는 구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7일 "주변 상하수도관에서 누수가 없었기 때문에 흙은 지하철 터널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흙이 얼마나 사라졌는지, 이 흙이 지하수와 만났을 때 부피가 어떻게 커졌을지, 배출은 얼마나 됐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해외 2번째 소녀상 제막 16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 북서 교외도시 사우스필드의 미시간 한인문화회관에서 위안부 소녀상 제막식 행사가 거행되고 있다. 이 소녀상은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시에 이어 미국 내 2번째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시정명령 정당”

3년 전 1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고등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옥시레킷벤키저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성분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인체에 안전하다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고, 결과적으로 폐 손상으로 사망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제품에 이미 노출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폐 손상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추가 피해자가 나올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어 잠재적 피해자와 대중에게 시정명령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다혜기자

“기아 체험 나눠요”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전 세계 굶고 있는 어린이들과 사랑을 나누는 제8회 용인시민 사랑나눔 기아체험 행사가 열려 참가한 학생, 시민들이 배고픔을 참으며 사랑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사 방해되면 자리 물러날 수도”

제주지검장 “경찰 오해” 강조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 제주지검장이 철저한 조사에 검사장으로서의 신분이 방해된다면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검장은 17일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검사장으로서의 신분이 방해가 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조직에 누가 될 것을 염려해 신분을 감춘 것이 상상도 못할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것만으로도 검찰의 생명과도 같은 명예가 나락으로 떨어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숨기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유치장에서 밤을 보낸 뒤 풀려났다.

대검 감찰본부는 경찰 수사를 좀 더 지켜본 후 김 지검장에 대한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다운기자

병사 25% 우울증 앓고 있다

각 대학의 여러 논문에서도 병사 10명 중 2~3명이 우울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대학원 간호학 전공 김선영씨는 2011년 석사 논문 '육군 병사의 지각된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영향 요인'에서 강원 경기 지역 2개 부대 병사 288명의 정신건강을 분석한 결과, ▲17.4%가 강박증 ▲11.2%가 대인 예민성 ▲25.0%가 우울증 ▲10.3%가 적대감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연세대 대학원 심리학과 정선영씨는 2012년 석사학위 논문 '자살시도병사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관한 개념도 연구'에서 입대 후 자살시도를 경험한 병사에게 위험요인 문장을 조사한 결과, '이것도 못하냐?'라는 상관의 말에 가장 큰 위험공감(4.57점=5점 만점)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씨는 "병사를 인격적으로 배려하고 신뢰,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다혜기자 ydh@

낡은 학교 안전조사 착수

낡은 학교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교육부는 지어진 지 40년 이상 되고 안전등급이 현재 C급으로 분류된 낡은 건물 534동에 대해 10월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현장 중심의 투자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학교 공사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학교를 사후 복구뿐 아니라 사전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윤다혜기자

가을 성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17일 오후 서울 혜화동 돈화문로 일대에서 한 꽃사과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다 /뉴시스

삼성·애플 소송 취하에 로펌들 '울상'

김앤장 등 수십억대 비용 허공으로…열거리 격감

삼성전자와 애플이 국내에서 진행하던 특허소송을 모두 취하하면서 대형 로펌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삼성과 애플은 지난 6일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던 특허소송의 항소심 3건을 전격 취하했다. 미국 이외 국가에서 소송전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취하된 소송 3건은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표준특허 침해, 삼성이 상용특허 3건을 침해당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 등이다.

삼성은 법무법인 광장과 율촌을, 애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각각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들 로펌은 양측의 소송전 덕분에 특수를 누렸다. 치열한 공방과 물량 공세로 수임료 총액이 수십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2011년 4월 소송 제기 후 3년 넘게 이 사건에 관여한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소송 취하로 중요한 일거리를 잃었다. 특히 소송에서 어느 쪽도 이기지 못해 성공 보수도 바랄 수 없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17일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취하로 관련 팀 소속 변호사들의 업무 강도가 많이 줄었다고 들었다"며 "그만큼 새로운 사건에 대한 수임 압박은 심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준기자

'구더기' 감정 왜 함구하나

유병언 국과수 조사결과 '쉬쉬'…"의혹만 증폭"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씨의 유류품 등에 대한 국과수의 감식 결과가 나왔는데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유씨 사인과 관련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유병언 사망사건 수사본부는 지난달 22일부터 매일 120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유씨가 머물렀던 송치재 별장 '숲속의 추억'과 시신이 발견된 매실 밭을 중심으로 주변 도로와 야산 등 한 달여째 정밀 수색을 벌였다. 하지만 유씨의 사인 규명에 도움이 될 만한 아무런 단서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동안 발견한 안경 2개와 지팡이, 비토 포대, 술병 등은 유씨와 관계가 없거나 이동 경로를 추정할 만한 단서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특히 경찰은 최근 국과수와 고려대 법의학연구실이 유씨의 시신에서 나온 구더기를 정밀 감정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구더기 감식 보고서에는 유씨의 '사후 경과 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사망 추정 시점의 범위를 좁히고 원인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또 유씨의 시신 옆의 천 가방에 들어 있던 월따 등의 유류품에 대한 국과수의 감식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17일 "뚜렷한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본청과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며 "그동안 발견된 유류품의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조만간 언론 브리핑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만 전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한 '밀봉 수사'에 국민의 의혹만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민기자 mjkim@metroseoul.co.kr

빨라진 추석 이른 벌초 38년 만에 가장 이른 추석을 앞두고 성묘객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17일 오후 성묘를 하려고 파주시 용미리시립공원묘지를 찾은 한 가족이 벌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7년 주·야 교대근무하다 심장병, 산재"

주·야간 교대 근무를 오랜 기간 하다 근로자가 병을 얻었다면 갑작스러운 과로가 아닌 일상적인 수준의 업무 중이었어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박모(53)씨가 "요양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27년 동안 해온 교대 근무는 인간의 생체리듬에 역행하고 신체에 많은 부담을 주는 근무 형태"라며 "근무 절반을 야간에 한 박씨는 스스로 업무를 조절하거나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27년간 가야자동차에서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해오던 박씨는 2012년 5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홍다혜기자 yul@

외국인 서울 하루 체재비 426달러

세계 25번째·亞 5번째

올해 외국인이 서울에서 하루 생활하는 데 소요되는 체재비(호텔·음식비)가 아시아에서 5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세계 100대 도시 여행객 평균 체재비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기준 서울의 하루 체재비는 426달러(호텔비 253달러·음식 173달러)로 세계 100대 도시 가운데 25번째, 아시아 도시 가운데 5번째로 비쌌다. 세계 100대 도시의 1일 평균 체재비는 368달러(호텔비 226달러, 음식비 142달러)다.

올해 도시별 체재비를 보면 ▲1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611달러 ▲2위 스위스 제네바 547달러 ▲3위 스웨덴 스톡홀름 526달러 ▲4위 노르웨이 스타방에르 524달러 ▲5위 홍콩 523달러 순이었다.

아시아 도시는 ▲11위 러시아 모스크바 490달러 ▲13위 싱가포르 478달러 ▲21위 일본 도쿄 452달러 ▲51위 중국 베이징 355달러 등이었다.

서울은 2011년에는 세계 100대 도시 중 여행하기 비싼 도시 58위였으나 2012년 32위, 2013년 27위에 이어 올해는 25위로 뛰어올라 해를 거듭할수록 비싸졌다. /윤다혜기자

교육청, 미화원에 조식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환경미화 직원에게 18일부터 아침식사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로 50~60대 여성인 환경미화 직원 23명은 매일 오전 5시 30분부터 청소를 시작하기 때문에 아침식사를 제대로 챙길 수 없었다.

이들은 지난달 조희연 교육감과 함께한 오찬에서 이러한 고충을 토로했고 이에 시교육청은 계약 변경 절차를 거쳐 아침식사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침식사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814만원이다. /윤다혜기자

(왼쪽)1984년 2호선 이대역 2014년 2호선 강남역. /서울메트로 제공

"역무원에게 승차권 개·집표 받고 가세요"

지하철 개통 40년 – 그땐 그랬지 ⑧

1974년 8월 15일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됐고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40년동안 시민들과 함께 발전해온 지하철은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는 역무자동화로 인해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면 지하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초창기에는 게이트 앞의 역무원에게 승차권을 개·집표 받아야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었다. /윤다혜기자

16일(현지시간)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마이클 브라운의 사망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가 엿새째 계속되고 있다 /미러

비상사태 선포 야간 통행금지

미국 퍼거슨시 흑인 소요사태 최악 상황으로…

미국 흑인소요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CNN 등에 따르면 10대 흑인 총격사망 사건 이후 흑인 소요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미국 미주리주 소도시 퍼거슨시가 비상사태를 16일(현지시간) 선포했다.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야간 통행금지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제이 닉슨 미주리주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퍼거슨 시민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건이 발생한 세인트 루이스 교회를 중심으로 야간 통행금지를 명령했다"며 "소수 그룹이 범죄를 기도하고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거리를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법무부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연방수사국(FBI) 요원 수십명이 직접 현장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퍼거슨시 경찰은 희생자 마이클 브라운(18)에게 총을 쏜 경관이 대런 윌슨이라고 발표하고 브라운이 사망직전 상점에서 시가를 절도하는 행위를 담은 폐쇄회로(CC) TV화면을 공개했다.

그러나 경찰의 이같은 절도 장면 공개는 유족은 비롯한 시민의 강력한 반발을 부르며 소요를 격화시켰다. 일부 흑인들은 브라운이 절도한 장소로 알려진 슈퍼마켓 '펜 리커' 등을 비롯한 여러 곳을 약탈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세인트 루이스 교회 등에서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과 고무탄을 발사하기도 했다.

/미국=김기자 kimlee@metroseoul.co.kr

라이베리아, 에볼라 치료제 '지맵' 치료

라이베리아가 시험단계의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지맵'의 치료를 시작했다.

1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라이베리아는 에볼라에 감염된 자국 의사 2명과 나이지리아 의사 1명에게 지맵을 투약했다. 이들은 아프리카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맵 치료를 받았다.

라이베리아에 제공된 지맵은 기존에 생산된 10~12인분 중 마지막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지맵의 투약 대상을 두고 한때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시험단계 치료제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앞서 지맵을 투여 받은 3명 중 미국 의료진 2명의 병세는 나아졌지만 스페인 선교사는 사망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이후 라이베리아에서는 약 700명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이 중 413명이 숨졌다.

/조선미기자 seeyou@

버스 기사 밥 먹으며 운전

metro Hongkong

최근 중국 인터넷에 '푸젠성 스스시 버스 운전기사 밥 먹으며 운전'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와 논란이다.

36초 길이의 동영상에서 운전기사는 왼손으로 도시락을 받쳐들고 밥을 먹으며 앞을 보고 있다. 젓가락을 든 오른손으로 틈틈이 기어를 변속하기도 하고 핸들을 조정하기도 했다. 신기에 가까운 운전솜씨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승객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것 같다며 운전자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스스시 교통부는 "동영상이 짧아서 어느 회사 버스인지 알 수가 없다"며 "운전 시 음식을 먹거나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행위는 주의력을 분산시켜 위급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 쉽다. 도로교통안전법 제97조는 운전 시 흡연, 음식물 섭취, 통화 등의 행위에 벌점 2점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리=조선미기자

세계 최고 인기 박물관은?

metro France

지난해 세계인이 가장 많이 찾은 박물관으로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 선정됐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가장 많은 방문객이 들른 박물관은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었다.

루브르 박물관의 2013년 관광객 수는 총 900만명으로 2012년보다 다소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루브르에 이어 2위는 워싱턴DC 자연사 박물관, 3위는 베이징의 중국국립박물관이 선정됐다. 특히 중국국립박물관의 경우 무료라는 특징으로 방문객이 2012년 500만명에서 2013년 7백만명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외에도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 런던의 대영박물관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타이완이다. 타이완국립박물관은 지난해 총 400만명의 관람객을 맞아 큰 관심을 받았다.

/샤를리즈 수드리 르 뒤 기자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market index <14일>

코스피	코스닥
2063.22 (+0.81)	558.18 (+6.43)

금리	환율
2.54 (+0.03)	1021.70 (-7.80)

홈플러스 테스코 파스타 판매 홈플러스는 17일부터 40여종의 다양한 테스코 파스타를 시중가 대비 평균 20% 저렴하게 판매한다 /홈플러스 제공

국내 임원보수 높지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임원보수 개별공시 논의에 대한 쟁점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기업 임원의 고액보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반영한 분석·평가를 내놨다.

한경연은 2012년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대비 CEO의 평균연봉 비율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51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노동총연맹산업별조직회의(AFL-CIO)의 임원-종업원 보수격차 자료에서 나타난 미국 354배, 독일 147배, 프랑스 104배, 스웨덴 89배, 일본 67배보다 비교적 낮은 편이다.

보고서는 기업의 가치가 증대할수록 임원 보수가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고액보수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오히려 기업가치의 상승을 억제하는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자조차 못 내는 기업에서 고액연봉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은 역설적으로 어려운 기업일수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유능한 고액연봉의 임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두탁기자 kimdt@

로또복권						[illegible]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2	22	27	33	36	37	14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2,322,706,157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46,683,776
3등	5개 숫자 일치	1,571,425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illegible] 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회장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4~9
독자센터 02)721-9801
[illegible]

이건희 회장 입원 100일… 삼성 앞날은?

'이재용 리더십' 공백 최소화… 3분기 반등 나설 것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17일로 거해 입원 100일을 맞았다.

앞서 이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 전무는 이 회장의 병세와 관련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전무는 "구체적인 병세와 치료방법에 대해서는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있어 자세히 이야기하기 힘들다"면서도 "삼성병원 의료진은 앞으로도 (이 회장의 병세가) 지속적인 회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 부재의 우려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체제 속에 안정적으로 경영이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갈등 상황이 이어지던 애플과의 관계도 개선되고 있고, 삼성전자서비스노조와의 협상 타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문제도 본격적인 협상모드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재용 리더십 빛났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당시 밀착마크에 나선데 이어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 출장길에 잇따라 오르며 삼성의 글로벌 행보도 직접 챙기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 간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특허소송을 철회하기로 한 것도 업계에선 이 부회장의 성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미국 미디어콘퍼런스에 참석하고 돌아온 지 2주만에 다시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이후 며칠 뒤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 철회 소식이 전해진 것. 2011년 이후 3년간 갈등상황이 지속된 상황에서 이처럼 극적인 화해 무드가 조성된 데에는 이 부회장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사 간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임단협)도 최종 타결됐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협상이 타결된 후 공식 홈페이지에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사와 노조 간 진행된 교섭 합의가 원활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며 "협력사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단협 타결로 삼성전자서비스노조는 조합원 자살 사건 이후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40여일간 진행한 농성도 풀었다.

삼성전자와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 등에 걸린 삼성 직업병 피해 노동자 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도 재개됐다. 삼성전자는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직접 나서 백혈병에 걸린 당사자와 가족에게 사과하는 한편 합당한 보상을 약속했다. 이를 계기로 피해가족을 대표하고 있는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과 삼성전자 간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2분기 실적 악화… 해법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들이 이 회장이 쓰러진 2분기 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원화 강세 영향과 중국발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 속 실적 악화를 겪었다. 2분기 매출은 52조3532억원, 영업이익은 7조18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9%, 24.6% 감소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6조25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6% 줄었다.

특히 IM(IT·모바일)부문의 실적 감소가 큰 영향을 끼쳤다. IM부문에서만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29.6% 급감했다.

이 같은 삼성전자의 실적 악화는 삼성전기, 삼성SDI 등 부품 계열사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업계에선 3분기 다시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들의 실적 반등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중심엔 다음달 3일 공개되는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4'와 지난 13일 선보인 메탈 프레임을 적용한 '갤럭시 알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애플 '아이폰6', 중국의 애플 샤오미 등에 맞서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4와 갤럭시 알파 등 새로운 스마트폰 라인업으로 반격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영기자 | [illegible]@metroseoul.co.kr

삼성 프리미엄 김치냉장고 출시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김치냉장고 '2015년형 지펠아삭 M9000'을 17일 출시했다 /삼성전자 제공

'아이폰6' 가격 인상되나…

9월에 출시될 예정인 애플의 아이폰6가격이 기존보다 비싸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새로 탑재하는 사파이어 화면의 원가가 워낙 높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이 기존 아이폰의 카메라 렌즈 덮개와 '터치ID' 지문 인식 장치에는 사파이어를 쓰고 있으나 화면까지 사파이어로 만들면 원가가 훨씬 높아진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이폰 새 모델에 쓰일 사파이어 화면의 원가가 대당 16달러로 아이폰4s 이후 사용해 온 코닝 고릴라 유리의 원가가 3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높다.

애플이 올해 9월 발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폰6 모두에 사파이어 화면을 쓸지는 확실치 않다. 애플의 아이폰6는 4.7 인치와 5.5 인치 등 두 가지 화면 크기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파이어 화면은 이 중에서도 일부 고급 모델에만 쓰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에따라 아이폰6 중 사파이어 화면을 쓰는 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WSJ는 예측했다. 하지만 애플이 마진을 줄이더라도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분석도 있다.

한편 사파이어는 매우 딱딱한 물질이어서 이를 스마트폰 화면에 사용하면 흠집이 잘 나지 않는다. 물질의 상대적 경도(딱딱함)를 나타내는 '모스 경도'로 보면 사파이어는 9로 10인 다이아몬드의 바로 아래다. /이국현기자 lgh@

'中企 구원투수' 변호사·회계사 모집

대한상의 '구조개선 전문가' 양성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중소기업 구원투수' 양성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부실위험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전문가' 과정을 신설하고, 다음달 12일까지 무료 수강생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구조개선 전문가는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현장에 투입돼 부실요소를 진단하고, 맞춤식 처방을 제시하는 중소기업 회생 전문가를 뜻한다. 또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 새로운 사업혁신 전략을 제시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판 구원투수다.

미국의 경우 1993년부터 변호사, 회계사,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사업회생관리협회(TMA) 주관하에 공인 기업회생전문가(CTP)를 육성해 현재 500여명의 전문가가 중소기업의 부실예방과 회생을 이끌고 있다.

이 과정은 변호사, 회계사 등 기업경영과 관련, 소양을 갖춘 이를 대상으로 ▲성공·실패 사례 분석 ▲종합 전략수립 시뮬레이션 ▲분야별 구조개선 계획 등 중소기업의 현장수요에 맞춘 실습위주의 교육이 제공된다.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과정의 모집대상은 변호사·회계사, 기업건강관리지도사, 경영컨설턴트, 대기업 퇴직임원 등 35명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위기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기업정보 노출을 우려하며 외부 도움을 받는 것을 꺼리다 부실에 심화되는 경우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전문가를 양성해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의 정상화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ksc@

가격제한폭 확대, 증시 물꼬 트이나

현행 15%서 30%로 높여… 거래대금 증가 기대감

Issue&View
정부정책 호재는

/김현정기자 kok nil@metroseoul.co.kr

정부가 16년 만에 내놓은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정책이 거래대금 가근에 시달리는 국내 증시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정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증시 가격제한폭을 현행 15%에서 30%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거래대금 가뭄에 시달리는 국내 증시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을 표했다.

1960년대 도입된 가격제한폭 제도는 지난 1998년 이후 15%로 고정돼 왔다. 특히 1998년 당시 외국인 투자한도가 완전 철폐된 것과 맞물려 가격제한폭 확대는 거래대금 활성화는 불가피했다.

이대상 대신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한도 철폐와 가격제한폭 확대가 1998년 중반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코스피 거래대금 추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짓기엔 무리가 있지만 큰 영향을 준 것만은 사실"이라며 "따라서 가격제한폭 확대가 거래대금 증가를 일정 부분 이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거래대금 위축에 시달리는 국내 증시의 분위기를 일신하는 차원에서 이번 정책을 받아들였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지난 달 말 연일 하루 6조원 넘는 거래대금을 기록하며 코스피지수가 2080선을 뚫고 치솟기 전까지만 해도 바닥 수준으로 위축된 상태였다.

지난 2011년 하루 평균 6조9000억원에서 2012년 4조원대로 급감한 뒤 올 들어서는 1월 3조9000억원, 2월 3조7000억원, 3월 3조6000억원 등 3조원대 초반의 저조한 흐름을 이었다.

가격제한의 허용폭이 30%로 늘면서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대체 규제가 적용되므로 문제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장기업들은) 제도 변경으로 가격제한폭 규제가 대폭 완화하면 기업의 내재가치가 변할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지나친 기우라고 본다"며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가 다음 달 도입되고 연내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도 적용될 예정이므로 시장 급등락에 대한 통제장치는 여전히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는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시행되는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와 유사하다. 차이점이라면 기존 제도가 시장 전반의 급등락에 대해 거래를 멈췄다가 재개하는 반면,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는 이를 '개별 종목'의 주가로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황 연구위원은 "코스피200 종목은 주가 변동폭 3% 수준에서 커트가 발생하고 그외 종목은 6%를 기준으로 커트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가격제한폭 확대 제도가 현재 국내 증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대형주 쏠림 현상을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제도 도입 단계에서 우량 대형주 대비 펀더멘털이 취약한 중소형주에 대한 수급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증권사들이 중소형주 신용공여의 리스크를 크게 잡아, 가산금리를 확대하거나 신용공여 비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소형주에 대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주지 않을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중소형주 기피 현상은 지속될 것이란 비판이다.

반면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가능한 부작용에도 불구, 이번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대상 연구원은 "정부의 이번 정책은 일종의 '극약처방'인 셈"이라며 "정책 효과와는 별도로 시장 분위기를 바꾸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조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낡은 칫솔 하나로 집안청소 '끝'

절약의 기적이
전순이 주부 경제학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칫솔의 평균 수명은 3개월 정도다. 오래 사용하면 칫솔모가 벌어지고, 세균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대개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늘품 없고 낡은 칫솔이 훌륭한 청소도구가 된다는 사실! 집안 구석구석 손닿지 않는 곳을 청소할 때 그 빛을 발한다.

우선 집안 구석구석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잔뜩 쌓인 먼지는 칫솔을 사용하면 좋다. 손이 닿긴 힘든 창틀이나 방충망 등이 대표적이다.

칫솔로 창틀에 끼어있는 먼지를 한데 모은 뒤 청소기 호스로 빨아들이면 창틀이 깨끗해진다.

칫솔이나 청소기 호스가 닿지 않는 구석 부분은 면봉으로 닦아낸다. 방충망 청소를 할 때도 칫솔을 이용해 먼지가 쌓인 부분을 문지르면 효과적이다.

운동화를 세탁할 때도 유용하다. 모가 억센 솔로 힘을 줘 세탁하면 운동화의 수명이 줄어든다. 이럴 때는 솔이 부드러운 칫솔을 이용하면 좋다.

미지근한 물에 세제를 녹여 운동화를 20분 정도 담가뒀다가 모가 부드러운 칫솔을 이용해 문질러보자. 칫솔로 운동화를 세탁하면 찌든 때를 깔끔하게 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화 수명이 줄어드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낡은 칫솔은 욕실 곰팡이 제거에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욕실 벽면이나 바닥의 타일 사이에 곰팡이가 펴 지저분하다면 칫솔을 이용해 보자. 낡은 칫솔에 세제와 물을 묻힌 후 타일 사이를 문질러주면 끝! 세제 대신 치약을 묻혀도 비슷한 세정 효과를 볼 수 있다.

여기서 잠깐! 욕실 청소하기 전 뜨거운 물을 뿌려주면 타일 사이에 낀 물때나 곰팡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벗겨낼 수 있다. 찌든 때를 벗겨낸 후에는 찬물을 뿌려 벽면 세척을 마무리하도록 한다. /mina

생생과학탐험대, 美 전쟁기념관 관람 한국참여와 과학기술나눔공동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차 '생각하는 청개구리 과학탐험대' 미국연수단이 11일 한국전쟁참전기념관을 관람하고 있다. /한국참여 제공

금융권, 종교계와 스킨십 강화

농협銀 사회공헌 협력… 하나銀 기념주화 이벤트

종교계를 향한 금융권의 구애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간 종교단체를 위해 맞춤 상품 출시 등 다양한 지원을 펼쳐온 금융권이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을 계기로, 스킨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인천교구의 주요 파트너로 선택된 NH농협은행은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과 사회공헌 분야 업무지원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안정적인 금융지원 등 거래를 확대하고, 의료·복지·교육 등 사회공헌사업에 상호협력키로 했다. 또 협약내용의 진행과 관리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김주하 농협은행장은 지난 6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을 예방해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종교평화기금으로 2억 원을 후원했다.

사회공헌부터 후원, 대출과 종교 기관 전용 상품까지 은행 전방위적인 부분에서 종교계를 향한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특히 지난 2000년대 초반, 틈새시장'으로 종교를 선택했던 수협은행의 경우, 달란트예금과 상품에 적금 등 교회를 대상으로 한 전용 상품뿐만 아니라 사찰 전용 대출 상품인 '바라밀'과 교연을 대상으로 한 대출 등도 속속 선보였다.

교황이 방문하는 시기에 맞춘 행사 지원도 있다. 홍보부터 고객관리까지 함께 챙긴다는 복안이다.

하나은행은 오는 29일까지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기념주화 추첨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 행사는 바보의 나눔 통장·적금 가입 고객 50명에게 교황 방한 공식 기념주화 2종 세트를 증정한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매년말 '바보의 나눔 통장'과 '바보의 나눔 적금' 한 계좌당 100원씩 자체 출연해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내년말까지 기부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또한 교황이 방문하는 서울과 대전, 충북 음성 미사와 행사장에 신갈방석 50만개와 우산 3000개를 제공하며 행사를 지원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종교단체를 지원하는 것에는 장점도 많지만 대출의 부실 가능성 또한 있다"며 "일부 종교단체에서 무리한 신축을 한다거나 신도수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로 연체율이 늘어나게 될 경우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백아란기자 al @

BMW 드라이빙 센터, 직접 달려보니

BMW M4(왼쪽)와 M3(오른쪽)가 트랙을 달리고 있다

체험기

직선 주로서 시속 최대 200km '거뜬' 다양한 이벤트 가족과 즐길 수 있어

자동차의 성능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지만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속도 무제한의 '아우토반'이 없는 우리나라는 고성능 차를 소유한 이들이 제대로 즐길 만한 곳도 없다.

BMW가 지난 7월 영종도에 준공한 드라이빙 센터는 그런 의미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7월 준공식에서는 트랙 주행 때 동승 체험 밖에 하지 못했지만 드디어 직접 달려볼 기회가 주어졌다. BMW 고객과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M 트랙데이'가 그 무대다.

'M 트랙데이'는 BMW의 고성능 라인업인 M 모델을 한 자리에 모아 시승할 수 있는 기회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강원도 인제스피디움에서 열린 후 1년여 만에 BMW 드라이빙 센터로 자리를 옮겨 진행됐다.

올해 트랙데이에서 눈여겨 본 부분은 2.6km에 이르는 트랙을 직접 경험하는 것과 또 하나는 고성능 라인업 중 M4의 성능을 체험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러 시승자 중 M4를 주로 타면서 이 고성능 차가 트랙에서 어떤 성능을 발휘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체크했다.

가속&브레이킹 코스와 핸들링 코스를 연결해 달린 이번 체험은 차의 가속성능과 핸들링을 살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660m 길이의 직선로는 코너를 앞두고 최대 시속 200km까지 가속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체험에서는 그룹을 이뤄 달리다보니 150km 정도까지 가능했다. 최고출력 431마력의 M4 성능을 다 뽑아내기에는 직선로가 다소 짧은 감이 있다. 직선로가 긴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이라면 시속 250km 이상도 가능했을 것이다.

이어지는 핸들링 코스는 6번의 오른쪽 턴과 5번의 왼쪽 턴으로 구성돼 있다. 짧은 구간에서 방향 전환이 많아 운전 실력과 차의 성능이 구분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때 그룹주행을 할 경우에는 같이 달리는 이들의 운전 실력이 엇비슷해야 한다. 어느 누가 뒤로 처지면 페이스카가 속도를 늦추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자가 속한 그룹에는 두 명의 참가자가 속도를 쫓아오지 못해 전체적으로 늦어졌다. 주최 측에서 그룹을 구성할 때 드라이버의 실력을 감안해야 하는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그런 게 부족했다.

M4는 이 코스에서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날카로운 핸들링을 과시했다. 3시리즈와 플랫폼을 공유하지만 훨씬 단단하고 안정된 핸들링으로 "역시 M"이라는 감탄사를 내뱉게 만들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성능을 100% 즐기기에는 여건이 따라주지 않았다. 나중에 드라이빙 센터를 다시 방문해 체험해 볼 생각이다.

스티어링 조작만으로 코스를 바꿀 수 있는 원형 코스도 흥미로웠다. 스프링클러가 물을 흠뻑 뿌려 미끄러운 도로 위를 스티어링의 조작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색다른 재미를 준다.

또 하나 눈길을 끈 것은 다이내믹 코스다. 차가 지나가면 노면이 요동치고 물기둥이 뿜어져 나와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BMW의 주행안정장치가 자세를 잡아주기 때문에 특별한 조작기술은 필요치 않다.

이번 행사는 BMW 고객 180명과 동반자 180명 등 총 360명이 초대됐다. 직접 차를 운전하지 않는 동반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곰곰히 마련돼 지루하지 않도록 한 점이 인상적이다. 평소 드라이빙 센터를 방문할 때 가족과 함께 와도 좋은 듯하다.

BMW 드라이빙 센터는 수도권에서 한 시간 남짓이면 도달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한 번 방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찾아도 즐거울 만큼 알찬 구성이 돋보였다.

/박성훈기자 ferrari56@metroseoul.co.kr

온라인 게임, 中 도전 거세

퍼펙트월드, '소오강호~' 국내 공략

중국이 재차 한국 시장을 거세게 공략한다. 이번에는 온라인게임이다.

중국 최대 온라인게임 제조업체 퍼펙트월드는 최근 한국 사업 비전을 발표하고 신작 6종 국내 서비스 일정 등을 공개했다.

퍼펙트월드의 야심작은 '소오강호 온라인'이다. '영웅문' 등의 무협소설로 유명한 김용의 원작을 게임화한 것으로 스토리와 비주얼이 뛰어나다.

유저는 10대 문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캐릭터를 키울 수 있고 다양한 영상으로 스토리를 전달받는다.

'소오강호'는 지난해 6월 중국 서비스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대만, 베트남, 일본, 북미에서도 무협 팬을 사로잡고 있다.

한국에서는 현재 오픈베타 서비스 중이다.

퍼펙트월드는 이 외에도 올해 차이나조이에 출품돼 눈길을 끌었던 MMORPG '시조영웅전(중국서비스명)', MMORPG '일족지관(중국서비스명)' 등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퍼펙트월드의 이번 한국 공략은 과거 다른 중국기업의 행보와는 큰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작품의 스케일이 다르다. 모바일게임이나 웹게임과 달리 거액의 개발비가 들어간 온라인게임이 주력이다.

콘텐츠도 무시할 수 없다. '소오강호'는 국내에서 '영웅문', '동방불패'로 유명한 김용의 원작 소설을 온라인게임으로 만든 것이다.

'시조영웅전' 역시 김용의 원작인데 김용은 무협 분야에서 최고의 인기와 명성을 누리는 작가다.

국내에도 다수의 팬을 확보하고 있고 특히 30~40세대는 김용의 소설을 만화방에서 읽고 자란 추억이 있다.

뛰어난 원작과 게임성을 지닌 '소오강호'는 10대부터 40대에 이르는 폭넓은 소비자를 사로잡을 수 있다. /박성훈기자

연금계좌 활용시 연 3% 추가수익

금융가 사람들

■현명훈 한투증권 선임연구원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세제 혜택만 잘 활용해도 이자를 최대 연 3% 더 챙기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현명훈(사진)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11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까지 연말정산 세제혜택은 소득공제 방식이었지만 올해 납입분부터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기존 소득공제 방식에서는 가입자별 소득 구간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랐지만 세액공제 방식에서는 일괄적으로 납입금액의 13.2%(기본 공제율 12%+지방세)가 공제된다"고 설명했다.

세액공제 방식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대해 연간 400만원 한도로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400만원을 납입하면 올해 연말정산분이 환급되는 내년 초 52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347만2000원으로 400만원을 투자한 셈이 된다.

납입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면 총 17.36만원을 아끼게 된다.

5년간 가입한 뒤 연금으로 수령하기 시작한 55세 이상 70세 미만의 가입자라면 세액공제만으로 연 3.85%의 추가 수익률을 얻는 것이다. 연금소득세율 3.3%를 적용받는 가입자라면 세액공제 수익률이 연 3.62%까지 올라간다.

연금 납입기간이 끝나고 연금으로 인출할 시기에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은 나이에 따라 55세 이상 70세 미만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또는 종신형 수령)이 4.4%, 80세 이상이 3.3%이다.

현 연구원은 "연금계좌를 개설한 정기예금이나 펀드 등의 운용 수익률과 더불어 세액공제에 따른 추가 수익률까지 챙길 수 있는 것"이라며 "납입기간이 10년으로 길어지면 세액공제 효과가 1%대로 낮아지긴 하지만 이 역시도 누적되면 적립금액의 큰 차이를 불러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적립연금계좌 활용시 연 3% 추가수익금을 연금 이외의 방식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면서 세액공제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마이너스를 낼 수 있다.

그는 "세액공제로 최대 3%대 안정적인 이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간과하면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현실기자

보험계약 '알고 바꾸자'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이야기. 이번 주 주제는 보험 가입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알아둬야 할 사항에 대해 다룹니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보험계약자는 가입 후에 자금 사정과 같은 경제사정의 변화 등에 따라 보험계약 내용 변경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거나 보험금을 받은 사람(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금액(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해야 할 때 등입니다.

그러나 보험계약 내용이 바뀌면 사망 등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보험사는 승낙사실을 서면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알리거나 보험증권 뒷면에 보험계약 변경내용을 기재(배서)해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우선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 후 개인 사정으로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면 보험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해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를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험가입 후 이혼 등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보험금 수령권자)의 인적관계가 변화한 경우라면 보험사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를 보험수익자로 해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이혼하면, 남편은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다르지 않는 한 자녀나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후 보험계약자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지거나 수입 등이 감소했다면 보험료 수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보장금액)도 함께 줄어들며 추후 사망 등 사고 발생시 보험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도 줄어들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고 싶더라도 건강상태나 보험범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증액 한도가 제한을 받거나 증액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필요에 따라 교통사고 등 재해보장 위주의 보험에서 암 등 질병보장 위주의 보험으로 바꾼다거나, 보험 만기로 인해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에서 환급금이 있는 만기환급형 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효용가치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계약체결비용과 같은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을 체결한 지 1년 이내 등 단기의 기간 동안에는 보험 종목을 바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 변경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수당 등 수입을 올리려고 기존에 유지되던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계약 체결을 유도한다면, 보험계약자가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의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피해를 본 보험계약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한화무역 다문화가정과 캠프 한화무역 부문은 지난 15~16일 동작구 다문화 가족 부모님 및 아동 16명과 충남 예산군 황계리에서 예술활동을 후원하는 '나눔으로 함께 할리' 캠프 활동을 펼쳤다. /한화무역 제공

기흥 골드훼미리콘도, 전원빌라형

경기도 용인시 기흥 골드훼미리콘도가 수도권 주민들의 전원빌라형 럭셔리 휴식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자연친화적인 입지가 인기 요인이다.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캠핑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22동의 글램핑장을 오픈하고 모든 장비를 갖춰 가족 단위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농구장·족구장·축구장 등 야외운동시설, 야외 바비큐장, 실내수영장, 헬스클럽, 사우나시설과 같은 다양한 부대시설도 갖춰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가예제·연수와 같은 크고 작은 모임을 위해 700명까지 수용 가능한 대형 강의실과 중·소형 세미나실도 제공한다.

콘도에서 20~30분 거리에 한국민속촌, 에버랜드, 경기도 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등이 있어 색다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기흥 골드훼미리콘도는 경부고속도로 기흥IC에서 나오면 있다. 예약문의 02-2112-8217, 031-286-9120. /이선녀기자

휴가 막바지 분양시장, 다시 활기

주간분양

한화 '정릉 꿈에 그린' 등 8개 단지 청약

여름 휴가철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잠시 휴식기에 들어갔던 분양시장이 다시 활기가 돌고 있다.

1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8월 셋째 주 전국적으로 청약접수 8곳, 당첨자 발표 6곳, 당첨자 계약 3곳, 견본주택 개관 6곳의 일정이 계획돼 있다.

한화건설은 19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 '정릉 꿈에 그린' 에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전용면적 52~109㎡, 총 349가구 중 14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서울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과 길음역,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2016년에는 경전철 우이~신설연장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SH공사는 21일 서울 서초구 내곡지구에서 내곡지구 2·6단지 분양주택 청약을 받는다. 전용면적 59~84㎡, 전체 318가구 중 13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이 단지 바로 앞에 있다. 다양한 도로망과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지구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외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성락시움(18일) ▲부산 강서구 신호지구 사랑으로3·5단지(19일) ▲전북 남원시 조산동 남원 수정헤뜨레(19일)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힐스테이트 에코동익 오피스텔(22일)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한화건설 '정릉 꿈에그린' 조감도

LH는 22일 경기도 화성시 파성동탄2 A66블록에서 '동탄2신도시 A66블록 공공분양'의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84㎡, 총 1552가구로 구성된다. 경부고속도로와 KTX동탄역(예정)을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인근에 워터프론트 컴플렉스와 근린공원 등의 편의시설이 조성된다.

같은 날 경남 양산에서는 2개 단지가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방문객을 맞이한다. 우선 롯데건설이 주진동 일대에서 분양할 '양산 롯데캐슬'은 전용면적 59~84㎡, 총 246가구 규모다. 웅상대로를 이용할 수 있고, 주변에 양산웅상도서관, 웅상문화체육센터, 이다트트레이더스, 롯데마트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평산초, 계윤초, 웅산중·고, 효암고 등과 인접해 있다.

양우건설은 양산신도시 49블록에서 '양산신도시 양우내안애 3차'를 선보인다. 전용면적 100㎡, 총 311가구다. 부산지하철 2호선 부산대양산캠퍼스역과 금오로, 물금IC를 이용할 수 있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양산워터파크, 양산시외버스터미널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다. 서남초, 물금초, 물금동아중, 범어고 등과 가깝다.

이밖에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힐스테이트 에코동익 오피스텔(21일) ▲경기 양평시 공흥지구 한신휴플러스(22일) ▲세종 2-2생활권 P4블록 금성백조 예미지(22일)가 견본주택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선우기자 naro0828@

東亞쏘시오그룹 LG FKI 전국경제인연합회 SAMSUNG 삼성전자 UNIQLO HYOSUNG samyang

HITACHI Sumitomo Corp Korea Mitsubishi Corporation KOREAN AIR SMBC

Canon DAIFUKU Daiichi-Sankyo FUJITSU FUJI XEROX

KYOWA KIRIN TORAY TOSHIBA TOYOTA TOYOTA TSUSHO KOREA YKK

경제성은 동급 최고, 심장은 '허약'

▲한 줄 평가: 연비는 국산 중형차 중 가장 좋다. 다만 소음과 진동에서 벌써... ▲평점 ★★★ (만점은 별 다섯 개 만점, ...는 1/2)

■르노삼성 SM5 D

최근 국산차에서 수입차로 갈아타는 이들의 상당수가 디젤차로 바꾸고 있다. 국산차에서 느낄 수 없는 운전 재미와 좋은 연비는 수입 디젤 승용차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힌다. 이런 추세에 부응해 현대 i40와 쉐보레 말리부 디젤에 이어 최근 현대 그랜저 디젤과 르노삼성 SM5 D가 선보였다.

이들 차종 중 가장 늦게 등장한 SM5 D를 얼마 전 시승차로 만났다. 외관은 기존 SM5 그대로다. 보닛을 열면 SM5 시리즈 중 배기량이 가장 작은 1.5ℓ 110마력 디젤 엔진이 얹혀 있다. 시동을 걸면 잔잔한 진동과 약간의 소음이 전해진다. i40와 말리부 디젤, 그랜저 디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소음이 거슬린다.

속도가 올라갈수록 이 소음은 줄어들고, 정숙성도 나아진다. 1750rpm부터 발휘되는 최대토크는 중저속 구간에서 좋은 가속력을 보여준다. SM5 가솔린 모델보다 높은 24.5kg·m의 토크는 일상적인 주행에서 불만을 느끼기 힘들다. SM5 TCE에 먼저 적용된 독일 게트락의 DCT 변속기도 무난한 연결감을 보여준다.

다만 가솔린 모델보다 공차중량이 69kg 늘어난 탓에 폭발적인 수준의 가속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중저속에서 괜찮은 가속감각을 보여줬던 SM5 D는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가속력이 밋밋해진다. SM5 시리즈 중 공차중량이 가장 무거운 TCE는 SM5 D와 최대토크가 같지만, 최고출력이 190마력에 이르는 덕에 고속에서 더 나은 가속감을 보인다.

SM5 D의 가장 큰 매력은 뛰어난 연비다. 도심 15.1km/ℓ, 고속도로 18.7km/ℓ, 복합 16.5km/ℓ에 이르는 연비는 현재까지 나온 중형급 이상 국산 디젤 승용차 중 가장 뛰어나다. SM5 가솔린에 비하면 리터당 3.6~4.6km의 주행거리가 더 나오므로 경제성은 확실히 좋다. 시가지와 간선도로를 4:6으로 이번 시승에서는 13.0km/ℓ의 연비를 기록했다.

반면 경쟁자인 현대차의 i40와 비교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i40 VGT는 최고출력이 140마력으로 훨씬 높고, 최대토크는 33.0kg·m로 역시 SM5 D보다 우월하다. i40 VGT의 연비는 도심 13.1km/ℓ로 SM5 D보다 낮지만, 고속도로는 18.5km/ℓ로 큰 차이가 없다. 2.0 디젤 엔진을 얹은 쉐보레 말리부나 2.2 디젤의 그랜저가 경쟁상대에서 제외된다면, 1.7 배기량의 i40는 스펙 면에서 SM5 D의 가장 큰 라이벌이다. SM5 D의 가격은 2580만~2695만원으로 2765만원부터 시작하는 i40 VGT에 비해 저렴하다.

SM5 D는 뛰어난 연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경쟁자 중 가장 힘이 약하다는 게 약점이다. 디젤 모델은 연비뿐 아니라 운전재미 때문에 선택하는 이들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전재미에 비중을 두는 이라면 i40가, 연비를 중시하는 이에게는 SM5 D가 더 어울릴 것으로 보인다.

/ferrari5@metroseoul.co.kr

쉐보레, 맨유 개막전에 7개국 어린이 초청

이대영 군 등 11명과 특별한 시간 가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이하 맨유)의 공식 유니폼 스폰서 쉐보레(Chevrolet)가 16일(현지시간) 열린 맨유의 프리미어 리그 2014-2015 시즌 개막전에 한국을 포함 7개국에서 11명의 어린이를 초청,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맨유의 선발 출장 선수들은 한국의 이대영 군(10)과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등 7개국에서 선발된 어린이 11명이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나란히 입장했다.

이대영 군의 파트너가 된 제시 린가드(Jesse Lingard) 선수 등 맨유 선발 출장 선수들은 본인 유니폼 위에 파트너 마스코트의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입장했으며, 상대팀 선수들과 인사가 끝난 뒤 덧대어 입고 있던 유니폼을 벗어 각자의 마스코트에게 건네주는 '네임 스왑(Name Swap)' 이벤트를 연출했다.

쉐보레의 이번 네임 스왑 이벤트는 역경을 극복하고 축구를 통해 꿈과 희망을 찾아가는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기획됐다. 쉐보레는 맨유 후원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스포츠에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는 한편, 브랜드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다.

팀 마호니(Tim Mahoney) 쉐보레 글로벌 마케팅 책임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어린이들이 맨유 개막전에 참여함으로써 브랜드가 지향하는 희망과 가능성의 힘을 직접 선보이고 전 세계 쉐보레와 맨유 팬들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각자 다양한 역경을 극복하는 의지를 높이 평가 받아 선정된 11명 어린이의 축구를 통한 꿈과 희망 이야기는 쉐보레 축구 스폰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GM 세르지오 로샤(Sergio Rocha) 사장은 "한국을 비롯한 축구를 사랑하는 각국의 어린이들이 맨유 선수와 함께 자신의 꿈에 한발 다가서는 장면에 감동을 받았다"며 "쉐보레 브랜드의 글로벌 패밀리 모두에게 특별한 기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 해남의 송호초등학교에 다니는 이대영 군은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 축구를 통해 꿈을 키우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높이 평가 받아 이번 프로그램에 초대받았다. 박지성 선수의 열렬한 팬이자, 맨유를 가장 좋아하는 축구팀으로 꼽는 이대영 군은 프로 축구선수를 꿈꾸고 있다.

쉐보레는 지난 2012년 맨유와의 파트너십 체결 이후 전 세계 60여 개국에 총 2600만 명의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도록 100만 여개의 터지지 않는 축구공을 기부하는 '원 월드 풋볼(One World Futbol)'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세계인의 스포츠 축구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홍보를 지속해왔다. /정하니기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가 개막전에 7개국 11명의 어린이를 초청,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국산차 인기모델 중고차 시세> (단위: 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기아	레이			1,050	1,050	1,150
	올뉴모닝		800	840	910	1,000
쉐보레	스파크		590	700	750	830
현대	아반떼MD			1,400	1,670	2,030
기아	포르테	830	930	1,040	1,120	1,170
르노삼성	뉴SM3	830	980	1,010	1,110	1,410
현대	YF쏘나타	1,270	1,300	1,530	1,650	1,750
르노삼성	뉴SM5	1,120	1,210	1,420	1,540	2,150
기아	K5		1,300	1,490	1,760	1,830
현대	그랜저TG	1,170	1,290	1,520		
기아	K7	1,350	1,510	1,730	1,850	2,520

정보제공: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정론탁설
유병필
<언론인>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가 깨지면서 민생관련 법안이 다시 표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합의하고도 당내 강경파와 장외 세력에 밀려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을 연계시키면서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이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까지 정부가 요구한 경제활성화 민생·서비스 산업 발전, 정부조직 개편 등에 관련된 법안 수십 개가 묶여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이들 민생법안의 분리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마치 노조가 파업을 빌미로 회사측을 압박하듯이 볼모로 잡고 있다. 따라서 정국은 다시 냉기류를 타고 식물국회가 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고 다수당인 여당의 단독처리도 선진화 국회법에 따라 불가능하다.

정부가 국가개조를 추진하면서 경제살리기에 올인 하려고 하나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 야당은 지난 7·30 재보선에서 무능정권을 심판해야한다면서 선거전을 치렀지만 오히려 심판 받았다. 심지어 야당 텃밭인 호남에서도 귀한 1석을 내줬다. 선거 참패 후에는 민심에 복종하겠다며 거듭날 것을 다짐하며 비대위 체제를 만들었으나 아직까지는 달라진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7·30재보선에서 민심은 세월호의 아픔을 이겨내고 경제를 살리면서 국가개조에 매진해줄 것을 주문했지만 야당은 벌써 이러한 국민정서를 잊고 있다. 지금까지 야당은 '무능 정당'이나 '반대 정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날 한미 FTA에서 노무현 정권 때 추진한 것조차 재협상을 고집한 것이 야당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 때에는 광우병 파동의 회오리 속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았다.

이러한 정치적 행보가 국민들로부터 냉정한 비판을 받고 있으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세월호 특별법만 해도 민생법안을 연계시키면서 경제살리기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큰 선거가 20개월이나 남아 있다고 민심을 외면할지 모르나 이러한 자세는 마치 유권자의 눈을 가리려는 것과 같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조차 뒤집게 되면 의회정치는 실종된다. 이제 야당은 정도(正道)로 나와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조금이라도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포토프리즘

TV에서라도 보고싶은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하는 시복식이 열린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역사박물관 앞을 찾은 시민이 시복식 현장 중계를 보며 기도하고 있다. 시복식장에 들어가지 못한 시민은 대형 스크린에서 나오는 시복식 현장을 지켜보며 기도하고 눈물 흘렸다. /손진영기자 son@

JYJ 세 남자가 사는 법

뉴스룸에서
유순호
<연예스포츠부 차장>

3인조 남성그룹 JYJ(김재중·박유천·김준수)가 지난 9일 서울에 이어 16일 홍콩 공연을 열고 2014 아시아 투어에 돌입했다.

서울에서 한 회 3만 명을 동원하며 시작부터 화제를 모은 이들은 총 8개 도시에서 해외 팬들과 만난다. 투어에 앞서 발매한 정규 2집 '저스트 어스'는 12만 장을 팔았고, 해외 7개국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

올해 국내 공연계가 극심한 침체에 빠졌고 오프라인 음반 시장을 고려하면 이들의 성과는 더욱 돋보인다.

2010년 팀을 결성한 이후 JYJ가 세운 숱한 기록들을 돌아보면 이번 결과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또한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요즘 이들의 활약상은 그 일부에 그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들의 성과가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는 여러 악조건을 헤쳐왔다는 데 있다. 활동 기간의 상당 부분을 전 소속사와의 송사로 보냈고 법적 분쟁을 끝낸 지금도 여전히 각종 제약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공연장 대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공재인 전파를 탈 수 없다는 점은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가수들의 가장 큰 홍보 수단인 음악과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여전히 요원하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같은 제약은 JYJ의 성공에 중요한 동기부여가 됐다. 김준수는 홍콩 공연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5년째 방송활동이 전무한데도 관객이 매번 공연장을 가득 채워주는 것을 보면 놀랍다. 방송 활동을 왕성히 했다면 그런 점이 감사함을 못 느꼈을 수도 있다"고 했고, 박유천은 "수익보다는 팬에게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무대에 서 왔다"고 말했다.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화를 거듭하면서 제작 지원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되고 견고해 지고 있다. 덩치를 키워가는 연예 기획사들은 거대한 문화 권력으로 부상했다. 예술적 창의력 위에 힘의 논리가 문화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JYJ는 이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순수한 열정과 노력으로 힘의 논리에 맞서 왔다.

공평한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현 상황의 불만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한다.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다면 유일한 선택 속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JYJ 세 남자가 살아온 방법이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불공정이 만연한 한국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외침으로 들린다.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기적

백상진의
트렌드읽기

ALS 아이스 버킷 챌린지가 흥미롭다. 지난 주 페이스북 CEO인 마크 주커버그는 MS의 빌 게이츠에게 영상을 전달했다. 빌 게이츠는 그 메시지를 이해했고, 자신이 직접 제작한 기구를 이용해 얼음물을 뒤집어 썼다. 그리고 ALS협회에 기부금을 냈다. 이 영상은 그의 페이스북에 올려졌고 또 다른 동지의 등장을 이끌었다. 루게릭병으로 알려진 ALS를 돕기 위한 이 행위의 반향은 사소한 시작이었으나 세상을 조롱하는 인물들마저 발을 빼지 못하게 하는 유쾌하고 진정성 있는 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영화 명량이 국내 흥행기록을 갈아치웠다. 개봉 18일 만에 총관객수 1362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이제 꿈의 1500만 명 이란 영화계의 숙원을 이뤄줄 '불후의 명작'이 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명량은 1597년 정유재란 때 조선의 수군이 명량에서 일본 수군을 격파한 싸움을 다뤘다. 명량대첩으로 통칭되는 이 전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역사다. 이순신은 세종대왕과 함께 한국 역사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영화는 이순신의 영웅적 모습에 집착하지 않았다. 장수로, 신하로, 아버지로, 국민으로 치열하게 살고 있는 한 인간의 삶을 진솔하게 전달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선출 직후부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세족식이 그랬고 동성애자에 대한 열린 표명이 그랬고, 외유를 위한 여권 발급이 그랬다. 교황으로서 직위는 최소한으로도 누리지 않고, 끊임없이 권위를 덜어냈다. 종교의 지도자로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지구라는 생명체 안의 하나의 존재로서 인생을 표출했다. 그럴 수록 그를 향한 세인의 지지는 급증했다.

이 시대의 사람과 사회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망설이지 않는다. 이 책임감은 과거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 운동에서 나타났던 것과는 판이하다. 콘텐츠화되고 미디어에 편승하고 압박없는 공감을 끌어 내는 건강한 유머가 있기 때문이다. ALS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그 제목에서부터 참가자에게 '척'이 아닌 기꺼운 진심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 묵직한 유대가 느껴진다. 명량을 보고 나온 관객들의 표정에는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른 자부심이 묻어난다. 교황의 말 한 마디는 울림이다.

능동적으로 보여주는 과장 없고 겸손하게 드러내는 말과 행동은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기적'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 기적이 필요하다. 세월호에도, 싱크홀에도, 국회에도.

/[illegible] 대표

금리 인하, 경제살리기 온기 되길

기자수첩
김민지
<경제산업부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7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하방 리스크'라는 단어를 9차례나 언급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첫 회동에서도 내수부진 등으로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는 경기 인식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비춰보면 한은의 이번 결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제는 기준금리 인하가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1000조원을 넘은 가계 부채를 더 늘려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고 전셋값 상승을 불러와 서민 가계에 주름을 더 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초저금리 시대의 도래는 보험 소비자에게도 직격탄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모아 자산을 운용한 다음 그 수익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저금리 추세가 이어지면서 자산운용수익률이 계약자 몫으로 쌓아야 할 보험료적립금 평균이율보다도 낮은 역마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보험료는 오르고 소비자들이 받는 연금이나 보험금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노후 대비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연금 상품의 역할에도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가 실물 경제를 활기차게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하는 것이다. 금리 인하가 경제분야 구석구석까지 온기를 퍼뜨릴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을 펼쳐 주길 기대한다.

한류 주역 예술가들 '외도'…'이색 향초' 개발

스타마케팅 세계 시장 공략 · 권상우·정우 소속사 등과 협의

전직 고참 방송사 PD와 저명한 화백, 향조 장인 등 얼핏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세사람의 방송·예술가들이 외도에 전세계 시장 공략을 목표로 이색 상품을 개발했다.

장이자는 Asian TV Award 대상과 휴스턴국제영화제 연출상 3연패의 신화를 쓴 한류명장 김수룡 PD와 뉴욕·유럽을 주무대로 세계적 명성을 떨치고 있는 고상수 화백, 캔들의 세계에만 미쳐 살아온 향조의 장인 배영근 씨 등 3명이다.

불교자선모임의 멤버로 처음 인연을 맺은 이들이 상품 개발을 위해 손을 잡은 이유는 한류 문화를 접목시킨 제품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사회에 기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최근에는 전문 유통회사인 '코리아TNT'란 회사도 차렸다.

김수룡 감독은 "한류 문화가 드라마와 가요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스타들의 명성에 비해 한류상품의 실적은 미미한 게 현실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의기투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 첫 작품으로 선보인 상품이 '향초인 스타캔들'이다.

한국 향조는 어느 나라에도 뒤지않은 역사와 우수성을 갖고 있어 업그레이드 할 경우 세계시장에서 한판 승부가 가능하다는 것에 확인했다.

현재 8개 제품으로 구성된 스타캔들은 기존 향조 제품과 달리 2개의 심지와 독특한 향기를 내는 것이 특징이다. 매혹적인 한국의 향을 짙게 뿜내며 용기인 왁스를 남김없이 태우는 경제적 장점이 매력이다. 여기에 모기나 날벌레 퇴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시트로넬라와 페퍼민트 향을 이용해 수면 장애나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여름용 캔들(포 썸머 스페셜)도 개발했다고 제조사인 코리아TNT 정섭은 대표는 설명했다.

앞으로 유자·잣니 개똥쑥·백리향 등의 특화된 상품을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해당 제품은 이달 중 쿠팡과 위메프 등 소셜마켓을 시작으로 11번가와 G마켓 등 오픈마켓으로 판로를 넓혀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예계의 마당발로 알려진 김수룡 감독의 인맥을 동원해 현재 한류스타인 권상우·정우·박진우 등이 포진한 벨엑티스 엔터테인먼트 등의 소속사 이 외에 넓어가기로 했다. 그 방법중에 하나가 드라마나 영화 등에 상품을 노출하는 PPL(간접광고)이 있다. 이는 통해 중국은 물론 일본·태국·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권 국가를 공략키로 했다.

김수룡 감독은 "향초 상품에 이어 캔들에 우신 등으로 상품 구색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며 "구성원 모두 큰 이익을 얻기보다는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모범적 스타마케팅이라는 새로운 유통 채널을 만들고 스타마케팅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도울 방안도 강구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성원기자 jmw@metroseoul.co.kr

아침을 활기차게 열어주는 음식은?

아침 식사는 뇌의 기능을 깨우는 역할을 하고 점심의 폭식을 예방해 다이어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타민 E가 가득 '아몬드'

아몬드는 항산화 기능이 있는 비타민 E를 나무에서 나는 견과류 중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다. 필수 영양소 비타민 E는 인체 내 흡수율이 가장 뛰어난 알파(α)-토코페롤 형태로 함유돼 있어 식품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보조식품에 포함된 비타민 E보다 두 배의 항산화·항노화 효능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침을 깨우는 '블랙커피'

블랙커피는 집중력을 높여주고 잠을 쫓는 효과가 있어 피곤한 아침에 한 잔을 마시면 좋다. 다른 음료보다 칼로리가 낮고 카페인 성분은 신체의 에너지 소비량을 약 10% 높여 다이어트에도 그만이다.

또 커피에는 항산화 물질이 포함돼 있어 몸 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혈관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정기적으로 커피를 마시면 후두암·전립선암·난소암·간암 등의 질병을 최대 39%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일기자

인천아시아경기 티켓 이벤트 종합외식기업 아모제푸드(회장 신희호)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공식 케이터링 후원을 기념해 아모제푸드 이용 고객 2014명에게 아시아 경기 티켓을 증정하는 '아모제푸드와 함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응원가자!' 이벤트를 다음달 3일까지 벌인다. /아모제푸드 제공

'무한 진화' 김밥… "이건 요리야~"

재료와 모양 등 신경 '프리미엄 김밥'까지 등장

간편식의 대명사인 김밥. 하지만 최근 소비자들의 경향은 김밥 하나를 먹더라도 뭔가 있어 보이면서 색다른 맛을 원하고 있다. 이에 관련 업계에선 매스티지 열풍까지 가세한 프리미엄 콘셉트의 김밥 제품을 출시해 눈길을 끈다.

먼저 스쿨푸드의 '마리'는 꽃을 닮았다 해서 블루밍 마리로 이름 붙여졌다. 한 송이 예쁜 꽃처럼 피어나는 모양새를 갖고 있으며 한입에 들어가는 미니 사이즈로 인기몰이 중이다.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 선동진 쌀과 청정지역 완도 김, 스페인산 최고급 오징어 먹물을 사용한다. 스쿨푸드의 비법 장아찌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에그마리부터 멸치·참치·볶음김치·베이컨·마늘·고추멸치·오징어먹물·날치알·불고기·스팸까지 다양한 종류를 골라 맛 볼 수 있다.

김밥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번쯤 찾아가 보았다는 30년 전통의 '방배김밥'은 명성에 걸맞게 입구부터 긴 줄이 그 인기를 증명해준다.

속 재료로 시금치 대신 부추가 들어가고 볶은 유부를 아낌없이 넣었다. 볶은 유부를 넣은 김밥은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며 고기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맛이 난다.

웰빙 김밥의 넘버원으로 불리며 수많은 마니아를 거느리고 있는 '압구정 리김밥'은 밥은 얇게 깔고 실하게 꽉 찬 속 재료로 승부를 건다. 이 곳의 '매콤 견과류 김밥'은 아삭한 오이의 신선한 식감과 오독오독 씹히는 멸치·견과류 조림의 달콤한 조화에 매콤하고 알싸한 청양고추의 맛이 더해져 매력적이고 끝 맛이 개운하다.

고집쟁이 김밥에서는 산 지리를 까지 않은 장흥 무산김만을 사용하는 것을 고집하며 별도로 판매하기도 한다. 이 매장의 '모둠 메가김밥'은 성인 여성의 팔뚝에 버금가는 크기를 자랑하는 압도적인 비주얼을 자랑한다. 촌득한 떡갈비와 불고기, 바삭한 왕새우튀김과 돈까스, 고소한 참치, 신선한 게맛과 야채들까지 메인 재료들을 모두 함께 돌돌 말아 한 번에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정영일기자

한살림생협, 뽀로로와 협업

유기농 캐릭터 '프랭키와 친구들' 세트 선봬

뽀로로 제작사인 아이코닉스가 '프랭키와 친구들'(원작사 리퀴드브레인)을 앞세워 한살림생협과 손을 잡았다. 프랭키와 친구들은 정직하게 농사를 짓고, 요리를 하는 유기농 캐릭터다.

서울시의 '타요버스'로 전국적인 신드롬을 만든 후 비영리영역에서 2번째 도전이다. 프랭키와 친구들은 한살림의 추석선물인 '과자선물모음'의 포장박에 적용됐다.

국내 최초 생협으로 1980년대부터 유기농업을 실천한 '한살림'은 뛰어난 제품과 정직하게 농사를 짓고, 요리를 하는 유기농 캐릭터인 프랭키와 친구들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살림 측은 프랭키와 친구들이 들어간 과자선물모음 이 외에도 ▲아산지역의 유기농 벗꽃을 넣은 유기사료로 키운 유기한우찜갈비 선물과 ▲평창의 고산 청정지역에서 5년 이상 키운 산더덕 선물 ▲서해도 앞바다에서 자생하는 돌미역을 채취해 자연건조한 자연산돌미역 선물 등 184종의 선물류를 준비했다.

한살림 추석선물은 한살림선물꾸러미 사이트(http://gift.hansali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영일기자

휴가 후 아이 건강 확인 필수!

더위가 한풀 꺾이고 벌써 가을 기운이 들고 있다. 환절기는 내 아이의 건강을 세심히 체크해야 하는 시기다. 특히 휴가를 다녀오면 무리한 아이들이 휴가 증후군을 앓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휴가 다녀오면 아이도 피곤해

휴가 후에는 아이들도 피곤하다. 평소보다 활동량이 늘어나고 잠자리가 달라져 휴가지에서의 수면 시간이 짧아지는 등 아이들도 피곤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가만히 쉬기보다는 오히려 몸을 움직이는 것이 낫다. 단 지칠 때까지 노는 것은 금물이고 저녁 시간을 이용해 30분 정도 엄마 아빠와 산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체력이 약하거나 체력 소모가 많아 간혹 코피를 보이는 아이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평소보다 일찍 자도록 해야 한다. 또 에어컨 냉기로 인해 코점막이 건조해지고 약해져서 코피가 나는 사례도 많아 수면 시 습도조절을 해주는 것이 좋다.

아울러 에어컨 냉기 등으로 기침을 하거나 누런 콧물, 가래를 보이는 경우에는 수분이 많고 배와 가관지를 촉촉하게 하는 배를 달여 먹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만약 잠을 못 이루는 경우에는 채소 위주로 식단을 준비하고 과일을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8월 후반은 가을 환절기의 예고편이기도 하다. 저녁과 새벽 날씨가 조금씩 서늘해지고 예민한 아이들에게는 감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감기 기운이 있으면 새벽에는 창문을 닫아야 하며 새벽이나 아침에 기침이나 콧물 증상이 있다면 차가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해야 한다.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직접적인 냉방을 피하고 얇지만 긴 옷을 준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낮 동안 30분 정도 햇볕을 쐬며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황재희기자 hsju 38줘

뷰티업계, '클레이' 성분 주목

미세점토 피지·노폐물 흡착 세안제·팩 형태로 출시

뷰티업계가 땀과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여름철을 맞아 '클레이' 성분에 주목하고 있다.

미세한 점토 성분인 클레이는 피부 속 노폐물과 블랙헤드를 흡착해 늘어진 모공을 조여주고 거칠어진 피부를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코스에 데코르테는 '클레이 블랑 세안제'를 출시했다. 화이트 클레이 성분이 피지와 각질을 제거하고 세안을 하는 것만으로도 머드팩을 한 듯 맑고 투명한 피부로 가꿔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아이지투쿠니스가 선보인 '핑크 클레이 에센스 마스크'는 워시오프 타입의 클레이 팩으로 프랑스 쥐라산맥에서 채취한 핑크 클레이와 벡금가루, 마누카 꿀을 주요 성분으로 함유했다. 미네랄이 풍부한 핑크 클레이가 모공을 관리해 피지와 안색 개선에 도움을 주고 마누카 꿀 등이 피부에 촉촉함을 더해준다.

프리메라의 '모로코 라바 클레이 포어 마스크' 역시 노폐물 흡착 기능이 뛰어난 모로코 라바 클레이 성분이 여름철 고민인 피지와 블랙헤드를 말끔히 제거한다. 마그네슘·칼슘 등 풍부한 미네랄 성분은 사용한 후에도 얼굴이 당기지 않게 수분을 채워준다.

최근 '허벌라이프 스킨 라인'을 론칭한 한국허벌라이프는 부드러운 크림 타입의 '퓨리화잉 민트 클레이 마스크'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벤토나이트 점토 성분이 피부 노폐물을 제거하고 피지를 흡착해 깨끗한 피부로 가꿔주는 마스크 팩. 세안 후 적당량을 얼굴 전체에 바른 뒤 5~10분 후 미온수로 헹궈내면 된다. 보습 효과에 탁월한 알로에베라잎즙, 로즈마리 잎 오일 등을 함유해 건조한 피부 타입도 부담 없이 쓸 수 있다. /이지은기자

고객 읽기, '솔루션 마케팅' 활발

그릇 깨지면 무상 교환 배달 음식 식으면 환불 제품 신뢰 높이는 효과

최근 소비자의 고민을 한발 앞서 해결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고객의 가려운 곳까지 긁어주는 세심한 마케팅으로 불황에 굳게 닫힌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려는 전략이다.

실제로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이 제품 사용 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해답을 제시하는 '솔루션 마케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노력은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덴마크 왕실 도자기 한국로얄코펜하겐은 업계 최초로 '파손보증제도'를 도입했다.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품이 파손될 경우 구매 영수증과 보증서를 함께 제시하면 해당 제품을 1회 무상으로 교환해주는 제도다. 비싼 명품그릇인 만큼 사용하다가 실수로 깨지 않을까 걱정하는 고객들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배달 음식 주문 앱 '배달의민족'은 배달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음식값 전액을 포인트로 돌려주는 '배달 음식 환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특성상 배달 지연 등 서비스 불만사례가 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달음식 환불제'를 도입한 것. 사용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은 크게 3가지다. ▲평소보다 음식량이 적을 때 ▲배달 예상 시간을 크게 초과했을 때 ▲배달 직원이 음식값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했을 때 등이다. 이 밖에도 사용자가 불편을 느낀 상황이 있다면 콜센터에 전화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나비엔은 보일러를 끄지 않고 외출한 고객들을 위해 스마트 원격제어기술 '콘덴싱 스마트 톡(TOK)'을 개발했다.

스마트 톡을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보일러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보일러에 이상이 생겼을 때도 서버에서 그 원인을 사전에 감지해 필요 시 출장 서비스까지 지원하고 있다. /박지원기자 pse@metroseoul.co.kr

착한 오드리헵번 선물세트 이마트는 18일부터 나눔의 아이콘인 오드리햅번의 매력을 그대로 담은 오드리헵번 나눔 선물세트를 기획해 초상권 비용 일부와 판매 수익금 일부를 오드리헵번 어린이기금에 기부할 예정이다. 가격은 1만5900원~3만4400원. /이마트 제공

강강술래, "추석선물 예약 전년보다 30%↑"

중저가·실속형 세트 인기

38년 만에 가장 빨리 찾아온 추석을 앞두고 추석 선물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추석 선물세트 예약판매 실적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보다 약 30% 정도 매출이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명절 선물의 단골손님인 정육세트와 보관이 용이한 가공식품 등 중저가·실속형 제품에 주문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강강술래는 전 매장과 온라인쇼핑몰(sulla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추석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며 20일까지 예약판매기간 구매 시 10%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행사기간 동안 인기메뉴인 한우불고기1호(1kg)는 4만5000원, 한우불고기2호(1.5kg) 6만3000원, 강강양념1호(16대) 8만1000원, 강강양념2호(24대)는 11만7000원에 판매한다.

강강실속2호(강강양념5대+한우불고기1kg·8만1000원)의 한우실속2호(한우양념2대+한우불고기1kg·11만7000원), 한우찜갈비세트1호(3.2kg·16만2000원)도 특가에 구매 가능하다. 100% 한우로 우려내 맛이 진하여 상온보관이 가능한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세트(800ml×5팩·15인분)'는 3만4900원, 소용량세트(350ml×5팩·10인분)는 2만250원에 판매한다.

한편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에 신청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갈빗 주전도서 2종'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벌인다. 연봉·투자스타일·나이별로 빈한 월급을 특별하게 만드는 93가지 비책을 정리한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과 가족·친구·연인은 물론 혼자서도 대중교통을 통해 즐길 수 있는 여행 정보를 총망라한 '자동이 떠나는 주말여행 코스북'이 마련돼 있다. /장혜선기자 hsun134@

아이들 교육체험전 인기

방학 추억거리, 창의력·감수성 높여

개학이 다가오는 가운데 언제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도심 속 교육체험전이 인기를 얻고 있다. 즐거운 체험과 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여름방학 마지막 추억거리를 소개한다.

먼저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박물관은 살아있다에서는 눈이펀 체험 전시를 만날 수 있다. 눈 속임이 가능한 트릭 아트와 오브제 아트, 그리고 미디어 아트 작품이 양비와 명화, 유언 등과 함께 준비돼 평소 접해지 못한 신기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또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울이나 의자 등의 소품을 재해석한 작품들은 아이들 창의성 발달에 도움이 되며 미술교육과 함께 과학적인 원리까지 배울 수 있다.

광진구 능동 육영재단 어린이회관에서는 다양한 로봇을 만날 수 있는 어린이로봇체험전이 한창이다. ▲수술로봇 ▲도삭면로봇 ▲물고기로봇 등 40여 종의 최첨단 로봇이 전시돼 있다. 특히 중국의 도삭면 로봇이 만든 중국요리도 현장에서 맛볼 수 있다. 아울러 일반 체험존에서는 3D프린터나 무인항공기 쇼마로봇 등도 등장하며 로봇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광진구 유니버저에서는 도예체험이 가능하다. 도자기 디자인을 하고 직접 도자기를 빚는 체험은 물론 만들어진 도자기에 식깔옷을 입히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색칠이 어려운 유아들을 위해서는 이미 색소가 포함된 색소지 점토가 준비되며 그릇뿐만 아니라 시계나 액자 등도 만들 수 있다.

또 경기 이천시 위치한 이천치즈스쿨에서는 아이와 함께 치즈와 피자를 만들 수 있는 치즈·피자체험이 진행되고 있다. 매일 오전 10시와 11시, 오후 2시의 세 타임으로 체험이 열리며 송아지 우유주기 등의 친환경적인 체험도 포함돼 아이들 감수성 발달에도 좋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신학기맞이 문구대전 홈플러스는 가을학기를 맞아 오는 9월 3일까지 전국 점포와 인터넷쇼핑몰에서 신학기 용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이번 기획전엔 문구, 사무, 가방, 의류, 잡화 등 1800여 종에 달해 역대 최대 수준의 물량을 준비했다. /홈플러스 제공

여름 장마철 곰팡이 고민 끝!

기능성 페인트 활용으로 예방법 알아본다

장마철이 끝났다고 하지만 비가 오락하는 불규칙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테리어의 고질적인 문제인 곰팡이 문제가 집집마다 골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을 맡겨보려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최근 DIY(Do-It-Yourself) 열풍이 불면서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아도 쉽게 시공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어 눈에 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친환경이다.

화학약품이 가득한 공간은 곰팡이만큼 좋지 않아 친환경 제품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집안 내 곰팡이도 DIY를 활용하면 쉽게 곰팡이를 제거하고 예방을 할 수 있다. 재료는 우리가 흔히 청소할 때 쓰는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이다.

베이킹소다는 약알칼리성 천연 미네랄로 식품첨가물로 쓸 정도로 인체 무해하지만 세척력과 소독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활용한다면 좋은 곰팡이 제거제가 된다. 베이킹소다를 쓸 때에는 끓은 물에 녹여 사용하고, 구연산을 함께 사용하면 거품이 생기는데, 이 거품이 곰팡이를 제거한다.

베이킹소다와 구연산, 물을 1대1대1로 섞어 걸쭉하게 만들어 수세미에 묻혀 닦으면 어둠철 자리잡았던 곰팡이를 해결할 수 있다.

곰팡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쉬운 것이 페인트 시공이다. 벽지 시공을 하기도 하지만 벽지에 습기가 스며들어 시공 주기가 짧아지는 단점 때문에 대부분 페인트 시공을 선호한다.

페인트 시공은 비전문가도 쉽게 시공할 수 있도록 벽러한 DIY용 제품들이 많아 굳이 전문가에게 시공을 의뢰할 필요가 없다.

지난 7월 출시한 조광페인트의 '자연N 어지클린'은 프리미엄 친환경 페인트로 곰팡이균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 수용성 낙서와 오염물질에 대한 내오염성을 갖고 있다.

/정해원기자 ...

집안 냄새 주범 잡는 법…

불볕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높은 온도와 습도로 생긴 각종 세균과 곰팡이로 인해 집안에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신발장·화장실·옷장의 퀴퀴한 냄새는 환기와 청소로 제거하기 쉽지 않다.

박근서 애경에스티 팀장은 "냄새의 근원지가 되는 신발장·변기·옷장에 각각 맞춘 전용제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신발장과 옷장의 경우 장시간 밀폐돼 있기 때문에 젖은 신발이나 덜 마른 옷 등을 그대로 넣어두면 다른 신발과 옷으로 세균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습기 제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땀이나 비에 젖어 눅눅해진 신발은 신문지를 신발 안쪽까지 채워 넣은 후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 말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신발장 속 악취 제거를 위해서는 신발을 모두 꺼낸 뒤 분무기를 이용해 소독용 에탄올을 뿌려두고 마르면 신문지를 깔고 그 위에 신발을 놓아둔다. 이런 방법이 번거롭다면 시판에 전용탈취제를 넣어두고 악취를 잡을 수 있다.

화장실 변기의 암모니아 냄새는 식초를 사용하면 쉽게 제거할 수 있다. 변기에 식초를 2~3컵 정도 붓고 30분 정도 기다린 뒤 솔로 문지르거나 물을 내려주면 된다. 식초가 물을 산성으로 바꿔 변기의 때를 벗기고 악취와 세균을 함께 잡아준다. 이후 식초와 물을 섞어 분무기에 넣어두고 자주 변기에 뿌려주면 악취 제거와 세균번식 방지에 효과적이다.

밀폐된 공간인 옷장의 경우 의류 세탁을 소홀히 하면 냄새는 물론 세균에 뒤덮이기 쉽다. 녹차 티백이나 원두찌꺼기를 헝겊에 싸서 넣어두면 옷장 내부에 자리 잡은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된다.

/정혜은기자 ...

태국, 새 택시 서비스 시행 면모일신

태국관광청은 방콕 수완나품공항이 최첨단 대기표 시스템을 도입한 택시 승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서비스는 직원이 직접 수기로 고객의 목적지를 메모해 대기하고 있던 택시 운전사에게 전달해 주던 방식을 컴퓨터화시킨 것으로 승객들은 도착 순서에 따라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택시 안내소는 수완나품공항 1층 4번과 7번 게이트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도록 디자인됐다. 인원이 많거나 짐이 많은 경우에는 전보 택시를 선택할 수 있다.

타와치이 아란익 태국관광청 청장은 "이번 서비스는 여행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근 시행되고 있는 교통 인프라 변경 중 하나다. 태국에서는 새로운 힘의 주를 조사를 통해 택시 운전사들이 안전을 준수하고 부당요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시력 저하, 나도 황반변성?

10년간 40~50대 환자 9배 증가

최근 황반변성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망막학회에 따르면 40~50대 황반변성 환자는 지난 10년간 9배나 급증했으며 발병 연령층도 낮아지는 추세다.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부 황반 조직에 변성이 생기는 질환으로 시력이 저하되고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증상이 나타난다. 심할 경우 실명에 이르게 될 수도 있으며 조기에는 환자 스스로 뚜렷한 이상을 찾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황반변성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으로는 ▲나이 ▲흡연 ▲자외선 노출 ▲식습관 ▲고혈압이나 비만 ▲가족력 등이 꼽힌다. 특히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고혈압 환자는 질환 위험도가 더욱 높아진다.

김윤석(사진) 이대목동병원 안과 교수는 "황반변성은 현재 완전한 치료법이 없어 위험 인자를 줄여야 한다. 발병률을 급격히 높이는 흡연은 가급적 삼가고 40대 전후부터는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피하고 녹색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황재용기자

metro entertainment

아이돌 그 이상의 아티스트 시너지

JYJ 아시아투어 '더 리턴 오브 더 킹' 홍콩 공연

개별활동 후 3년 만에 복귀 여유·내공 묻어난 3색 무대

K팝 개척자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한층 성숙한 무대로 아이돌 그 이상의 아티스트로의 재능을 펼쳐보였다.

JYJ는 16일 홍콩 아시아 월드 아레나에서 2014 아시아투어 '더 리턴 오브 더 킹'의 공연을 개최했다. 정규 2집 '저스트 어스' 발매 기념으로 지난 9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투어의 서막을 연 JYJ는 홍콩에서 무대를 이어갔다. 스탠딩석을 비롯해 1만여 명이 공연장을 빈틈 없이 채웠다. 24곡이 이어지는 2시간이 동안 하나의 함성으로 열광했다.

이번 공연은 세 명의 멤버가 해외 무대에 서는 자리라 팬들의 관심은 집중됐다. 지난해 4월 2~4일 일본 도쿄돔 콘서트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JYJ의 홍콩 공연은 2010년 10월 24일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그동안 김재중은 솔로 앨범과 드라마 영화, 박유천은 드라마와 영화, 김준수는 솔로 앨범과 뮤지컬로 아시아 정상에 올랐다. 솔로로만 수 천명의 관객 몰이를 하는 등 한류스타로 입지를 다진 이들이 다시 하나로 뭉치자 시너지 효과가 여실히 났다.

JYJ는 국내 아이돌 그룹 중 유일하게 모든 멤버가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자작곡 작업과 공연 연출을 하며 춤과 노래 실력을 겸비한 것으로 인정받아 왔다. 다시 뭉친 JYJ는 아이돌 그룹의 기준을 넘어섰다. 해외에서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공연을 본 여성 란(22)씨는 "멤버들은 여전히 소년 같고 귀엽다. JYJ는 K팝 가수 중 가장 오래 좋아한 그룹이다. 최고의 콘서트였다"고 했다. 메리(30)씨는 "노래, 춤, 하모니 모두 완벽했다. 솔로 무대도 무척 멋있었다. 술을 주이며 공연을 봤고 눈물이 났다. 김준수의 뮤지컬을 보러 한국에 갈 예정"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JYJ는 2집 수록곡 중 '백 싯'을 비롯한 11곡을, 1집 타이틀곡 '인 헤븐'을 포함한 3곡, 월드와이드 앨범 '더 비기닝' 수록곡 4곡 등을 고루 불렀다. 강렬한 퍼포먼스와 때로는 여유로운 무대매너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특히 솔로 무대는 뚜렷한 개성으로 마치 3개의 미니 콘서트를 모아놓은 듯한 느낌이었다. 김준수는 힘 넘치는 춤과 폭발적인 가창력, 박유천은 감미로운 자작곡 발라드와 랩으로 무대를 꾸몄다. 김재중은 상의를 벗은 채 섹시한 록 스피릿을 분출해 찢어질 듯한 팬들의 함성을 끌어냈다.

현지 남성 자코우(19)씨는 "셋이 함께 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 세 명이 함께하는 에너지가 굉장하다"며 "각자 매력이 뚜렷하고 멋있어서 어디를 봐야 할 지 고개가 아플 정도로 눈을 돌려가며 봤다. 최고의 공연이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JYJ는 홍콩에 이어 중국 베이징 청두 상하이, 베트남, 대만, 태국에서 아시아투어를 이어가며 조만간 추가 공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

JYJ 인기의 중요한 원동력은 끈끈한 우정에서 비롯된 팀워크다. 연습생 생활을 제외하고도 12년째 동고동락하고 있다. 이들은 공연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란 이런 것 같다"고 말했다.

김준수는 "몇 달 동안 연락을 하지 않다가 만나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서로를 대한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똑 같을 것 같아서 든든하다"고 말했다.

박유천은 "얼마전 준수가 출연하는 뮤지컬 '드라큘라'를 보고 왔다. 잘 아는 사람의 공연인데도 낯선 느낌이 들었다"며 "이전 공연을 다 봤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저렇게 힘든 공연을 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뭉클했다"고 진심어린 칭찬을 전했다.

그러자 김준수는 "유천이 형이 출연한 '해무'를 보면서 나도 그런 느낌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연기를 정말 잘 하는 사람들이 모인 틈에서 정말 영화배우가 된 것 같았다"며 "우리끼리 자화자찬 같지만 요즘 들어 부쩍 더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 생긴다"고 화답했다.

김재중은 두 명의 동생들과 3년 만에 함께 앨범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3년 만에 뭉친다는 거창한 의미보다 각자의 일을 하다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는 생각이 크다. 이번 앨범은 편하게 만들고 노래한 안식처와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콩=유순호기자 sunof@metroseoul.co.kr 디자인/최은지

'가족끼리 왜 이래' 20% 시청률

첫방, 동시간대 1위 상승 곡선 이어가나

KBS2 새 주말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사진)가 순조로운 첫 출발을 알렸다.

17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 집계에 따르면 16일 방송된 '가족끼리 왜 이래' 1회는 전국 일일 시청률 20.0%를 기록했다. 전작 '참 좋은 시절'의 첫 방송 시청률 23.8%와 마지막회 시청률 24.5%보다는 낮지만 동시간대 시청률 1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연령별, 지역별 분석을 보면 60대 이상 여자가 19%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나타냈고, 뒤를 이어 40대 이상 여자 13%, 60대 이상 남자 12%가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과 대구 및 구미 지역에서 모두 시청률 21.9%를 기록,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지역으로 집계됐다.

'참 좋은 시절'은 지난 2월 2회 방송분에서 자체 최고 시청률인 30.3%를 돌파한 뒤 반복되는 이야기 전개로 시청률 탄력을 받지 못했다. 줄곧 20%대 시청률 안에서 머무르다가 '왔다 장보리'에 역전을 허용한 바 있다. 첫회 만으로 호평을 이끈 이번 '가족끼리 왜 이래'가 시청률 상승 곡선을 그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방송된 MBC '왔다! 장보리'는 25.2%, '마마'는 11.8%, SBS '기분좋은날'은 5.3%, '끝없는 사랑'은 9.6%의 시청률을 각각 나타냈다.

/장병호기자 solanin

'명량' 1400만 '한계를 뛰어넘다'

'아바타' 제치고 역대 흥행 1위…고공 행진

'명량'이 영화계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아바타'를 제치고 역대 흥행 1위에 오른데 이어 1400만 관객까지 돌파하며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투자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명량'은 개봉 19일째인 17일 오전 6시 기준으로 누적 관객수 1422만7581명을 기록했다. 이는 어린 아이부터 10~20대의 젊은 관객들, 그리고 중장년층과 노년층까지 전 세대 관객들을 아우르는 입소문 열풍으로 시장 확대를 선도하며 기존 한국영화계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명량'은 개봉 첫 날부터 신기록 행진을 펼쳤다. 역대 최고 오프닝 스코어(68만), 역대 최고 평일 스코어(98만), 역대 최고 일일 스코어(125만)를 모두 새로 썼다. 유례가 없는 흥행 속도로 최단 기간 관객 동원 기록을 연일 경신했다. 또한 개봉 18일째인 16일에는 '아바타'의 기록을 뛰어넘어 역대 흥행 1위에 올랐다.

개봉 3주차에 접어들었지만 흥행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광복절이었던 15일 금요일 하루 동안 74만명의 관객을 모았고 16일에도 68만 관객을 동원했다. 해적 바다로 간 산적', '해무' 등 경쟁작들의 공세 속에서도 3주 연속 예매율 1위를 이어가고 있다. 좌석 점유율도 15일에는 70%, 16일에는 65%를 기록해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짐작할 수 있다. 꿈의 숫자로 여겨지는 1500만 관객 돌파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명량'은 1597년 임진왜란 6년, 단 12척의 배로 330척에 달하는 왜군의 공격에 맞서 싸운 명량해전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지난달 30일 개봉한 영화는 이순신 장군이 보여주는 위대한 리더십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최민식, 류승룡, 조진웅, 김명곤, 진구, 이정현 등 배우들의 열연도 깊은 울림과 감동을 전하고 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닌자터틀'로 5년 만에 내한

메간 폭스, 26일 레드카펫·27일 기자회견

할리우드 배우 메간 폭스(사진)가 영화 '닌자터틀'의 홍보를 위해 오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한국을 찾는다.

메간 폭스는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통해 섹시 스타로 많은 사랑을 받은 배우다. 지난 2009년 '트랜스포머: 패자의 역습' 홍보차 내한해 한국 팬들과 만났다. 이번 내한은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개봉 직전임에도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메간 폭스는 '닌자터틀'의 조나단 리브스만 감독과 제작자 브래드 풀러, 앤드류 폼과 함께 한국을 찾는다. 26일에는 레드카펫 행사로 팬들과 만나며 27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영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닌자터틀'은 인기 코믹스 '닌자 거북이'를 실사 영화로 만든 작품. 마이클 베이가 제작을 맡았으며 오는 28일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송강호·김혜수 "세월호 유가족 소망 응원"

영화인들 특별법 제정 촉구 나서

영화인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16일 배우 송강호(왼쪽 사진)와 김혜수(오른쪽)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와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송강호는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간절한 소망을 기원하고 응원한다"고, 김혜수는 "곁에서 함께하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마음을 보탠다"고 전했다.

또한 봉준호, 박찬욱, 김지운, 윤종빈, 김성수 감독 등과 배우 류덕환, 류현경, 김의성, 지우, 변호인 제작자 최재원 대표, 올드보이 전철헌 급자씨 등에 참여한 조영욱 음악감독, '수상한 그녀'의 임지영 프로듀서 등도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영화인준비모임(가칭)'은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 단식에 동참했다. 지난 13일에는 이란의 거장 모흐센 마흐말바프 감독이 광화문 광장을 찾아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17일에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임순례 감독과 '방가방가'의 육상효 감독이 단식에 함께했다.

/장병호기자

록의 전설·인기 팝스타 잠실벌 달궜다

14일 '슈퍼소닉 2014' 에서 공연 중인 록 밴드 퀸. /슈퍼소닉코리아 제공

레이디 가가

영국 록의 전설 퀸과 인기 절정의 팝 스타 레이디 가가가 광복절 연휴 동안 잠실을 뜨겁게 달궜다.

퀸은 프레디 머큐리(보컬), 브라이언 메이(기타), 로저 테일러(드럼), 존 디콘(베이스)으로 결성된 영국의 4인조 록 밴드다. 1971년 데뷔 이후 '보헤미안 랩소디', '위 아 더 챔피언' 등 노래로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1991년 프레디 머큐리의 사망과 1997년 존 디콘의 은퇴 이후 남아 있는 멤버들이 퀸의 이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잠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슈퍼소닉 2014' 공연은 데뷔 40여년 만에 갖는 퀸의 첫 내한공연으로 화제가 됐다. '아메리칸 아이돌' 출신 가수 아담 램버트가 프레디 머큐리를 대신할 보컬로 함께 했다.

이날 공연에서 퀸은 2시간 동안 총 22곡을 선보이며 오랫동안 내한 공연을 기다려온 팬들의 사랑에 보답했다. 연륜이 느껴지는 브라이언 메이와 로저 테일러의 연주, 그리고 아담 램버트의 무대 매너가 관객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사로잡았다.

그러나 감동적인 순간의 중심에는 프레디 머큐리가 있었다.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 무대에서는 공연장에 설치된 스크린으로 프레디 머큐리의 생전 영상이 등장해 관객들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공연 내내 프레디 머큐리의 그리움이 강하게 느껴졌으나 에너지 넘치는 무대가 그런 아쉬움을 달랬다.

레이디 가가는 화려한 퍼포먼스와 파격적인 행보로 잘 알려진 21세기를 대표하는 팝 아이콘이다. 지난 16일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AIA 리얼 라이프 나우 페스티벌 공연은 '아트레이브: 더 아트팝 볼 투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레이디 가가는 최근 발표한 세 번째 앨범 타이틀곡인 '아트팝'을 비롯해 '포커 페이스', '본 디스 웨이', '저스트 댄스' 등 20곡을 선보였다. 공연 시작부터 파격적인 의상과 무대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곤색 날개를 달고 무대에 오른 그는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속옷, 문어를 연상시키는 옷 등 총 7벌의 무대 의상을 선보이며 파격미를 드러냈다. 히트곡 '배드 로맨스'를 부를 때는 무대에서 의상을 갈아입는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펼쳤다.

화려함 뒤에 감춰진 의외의 면모도 만날 수 있었다. 발라드 곡 '도프'의 무대에서는 감격에 겨운 듯 눈물을 흘렸다. '본 디스 웨이'를 부르기 전에는 한국인 친구를 언급하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날 레이디 가가의 공연에는 2만여 명의 내·외국인 관객이 몰려들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2PM 중국 뮤직비디오 차트 점령

찬성·준호 인위에타이 1~2위 차지

2PM멤버들이 중국 뮤직비디오 차트를 점령했다.

16일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중국 최대 뮤직비디오 사이트 인위에타이에서 2PM 찬성이 부른 '첫눈에 반했어'가 지난 11일부터 16일 현재까지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이어 2PM 준호(사진)의 '넌 나와 잘 맞는 사람이야'가 2위에 올랐다.

찬성의 '첫눈에 반했어'는 중국 호북 위성 예능프로그램 '투귀아이' 주제곡으로 찬성은 프로그램 내 파트너인 리우옌과의 듀엣으로 노래를 불렀다. 특히 뮤직비디오 차트 1위에 오른 영상은 정식 뮤직비디오가 아닌 '투귀아이' 하이라이트 장면의 편집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준호와 지위이의 듀엣곡 '넌 나와 잘 맞는 사람이야'는 지위이가 출연한 중국 드라마 '사랑이 몰아왔다'의 엔딩곡으로 삽입됐다. 지난 4월 마지막 방송 후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자마자 인위에타이 뮤직비디오 차트 1위에 올랐다. 8월 첫째 주(8월 4일~10일)에는 인위에타이 중국 대륙 주간 차트 2위를 기록했다. 2주가 지난 16일 현재까지 2위에 랭크되는 등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솔로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2PM은 오는 9월 완전체로 한국에 컴백한다. /전효은기자 yon@

'아나스타샤' 아이스 뮤지컬로 재탄생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 시어터 팀 내한

국내 최초 아이스 뮤지컬인 '아나스타샤'(사진)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막을 올린다.

'아나스타샤'는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의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이 2세의 딸 아나스타샤와 젊은 군대의 장교가 겪는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1956년에는 영화로, 1997년에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 널리 알려진 이야기를 뮤지컬로 재구성했다.

이번 공연은 세계 최정상 메달리스트로 구성된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 시어터 팀의 국내 첫 내한공연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 시어터 팀은 1967년 고전 발레의 대가 콘스탄틴 보얀스키가 창단했으며 그 동안 전 세계에서 6000회 이상의 공연을 펼쳤다.

세계 선수권 대회와 유럽 선수권 대회 등에서 금메달을 석권했던 은반 위의 엘프 '엘레나 베레즈나야'가 예술 감독을 맡아 공연의 예술적인 질과 완성도를 높였다. 그는 극중 아나스타샤 역도 직접 맡아 환상적인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안무는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소련 국가대표로 활약했으며 16개의 금메달과 20개의 은메달, 9개의 동메달을 수상한 바딤 아브코프가 맡았다. 빙판 위 공연의 아름다움을 잘 그려낼 것으로 기대된다. /장병호기자

위너 '공허해' 각종 음원차트 정상

뮤직비디오 200만뷰 돌파

YG 신인그룹 위너(사진)가 데뷔 타이틀곡 '공허해'로 음원차트를 6일째 점령하고 있다.

위너 데뷔 타이틀곡 '공허해'는 지난 12일 음원 공개 직후부터 6일째 되는 17일 오전 현재까지 멜론, 벅스, 지니, 올레뮤직, 네이버뮤직 등 국내 5개 음원사이트 실시간 차트 1위를 석권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더블타이틀곡 '컬러링'과 수록곡 '끼 부리지마' 등이 다수의 음원사이트 10위권에 머무르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위너는 감성 힙합을 내세우면서 독특하고 차별화된 색깔로 데뷔 앨범으로는 유례없는 인기몰이 중이다. 음원과 함께 소속사 YG 공식 유튜브에 공개된 뮤직비디오도 200만뷰를 돌파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장병호기자

교황의 와인 '샤또네프 뒤 빠쁘'

조민호의 와인스토리

스위스에서 지중해로 흐르는 론(Rhone) 강의 중·하류를 따라 발달해 있는 론 지역 와인 생산지는 북부와 남부로 나뉜다.

북부 론은 대륙성 기후이며 화강암 지대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라 품종의 고향이며 코뜨-로띠, 에르미따쥬 등 세계 최고의 시라 와인이 생산되는 곳이다.

남부 론은 지중해성 기후로 완만한 언덕에 위치해 있다. 토양은 자갈이 많고 박악질이다. 북부 론과 달리 남부 론은 그르나슈 품종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레드와인에 13개의 품종을 블렌딩할 수 있다. 그 중 그르나슈와 시라, 무르베드르 등 3개 품종이 주로 사용된다.

샤또네프 뒤 빠쁘(Chateauneuf du Pape)는 남부 론 지역의 대표적인 와인 생산지다. 와인 병 라벨에 이 지역명이 표시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품질 보증이다.

샤또네프 뒤 빠쁘는 사전적으로 '교황의 새로운 성'이란 뜻이다. 그래서 교황의 와인이라고도 한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중세 들어 십자군 전쟁이 한창일 때까지는 교권이 왕권을 압도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유럽 전역이 피폐해지면서 교황의 권위는 떨어지게 된다. 그러자 프랑스 국왕 필립4세가 교황 보니파키우스8세와의 분쟁 끝에 승리하고 이 때부터 왕권이 앞서는 시대에 접어든다.

신임 교황 클레망5세는 필립4세에 의존하며 로마로 돌아가지 않고 프랑스 남부의 아비뇽에 머무른다. 이 때가 14세기 초였고 그로부터 70년 동안 아비뇽 교황청 시대가 이어지게 된다. 샤또네프 뒤 빠쁘라는 지역명은 아비뇽에 인접해 교황들이 여름을 지내던 별장이 있던 데서 유래됐다. 와인의 품질도 이 때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분명히 교황과 관계가 밀접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몰락해 가던 교권의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러니도 느껴진다.

샤또네프 뒤 빠쁘 와인은 튼튼한 골격과 뛰어난 균형감으로 정평이 나 있다. 시라 특유의 스파이시함(후추냄새)이 느껴지며 장기 숙성에 의한 부케(오크 숙성을 통해 스며드는 향)도 좋다. 만만한 가격은 아니지만 그 맛과 향은 오랜 세월 기억에 남는다.

/metro@metroseoul.co.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3			8		4
				4			3	1
	4			6			5	
9					3	2		
2	6						6	5
		4	2					6
	8			3			9	
4	3			5				
1		6			8	5		

		1		6	5		2	
5	4							1
			4	7		5		
3	1					6		
		9	6		8	4		
		6					3	9
		5		9	4			
2							9	5
	8		1	5		2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 보누스
「연사 스도쿠 크리에이터」(웨인 고든 스콧크 등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힘든 언론계 일, 전직하면 어떨까요
상승기류 계속 정진하면 좋은 결실

Q hynin 46세 남자 양력 11월 6일 아침 6시경

좋은 지혜를 주시는 선생님 오늘도 사주 하나를 올리오니 이 사람 앞으로 잘해 가 빛이 날 사람인지를 봐 주십시오. 지금은 언론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은 별로 없으나 과연 현재 일이 앞으로 전망이 있는지요, 근무 시간도 일정치 않고 현장에서 사람들과 많이 시달립니다. 이 길이 아니라면 장사를 하거나 아버님이 건축쪽 회사 일을 하고 있으므로 저도 그쪽으로 해볼까 합니다만 마음대로 됐다기 저의 사주의 좋으로되 운로가 어떠냐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망설여집니다.

A 닭띠 음력 9월생으로 태어난 생일지가 식복이 풍부하고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뒷일이 잘 풀리고 소기에 성과를 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다 맺은 늦은 가을에 때 이른 비가 오듯이 원지 쪽에는 잡에가 있어 암살이거나 말벌에 중단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지난 40세부터 돈을 쫓던 약간의 도박성과 유흥으로 돈을 지불했다고 봅니다. 도화의 기운이 강하게 떠오르는데 도화는 이성도 관여되지만 귀하의 경우는 도박성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며 주변에 항상 이성이 따라 다닐 수 있으므로 이런 점을 유의 하세요.

관운과 재물 운이 53세 이후 완성하게 상승기류를 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언론 계통과 연관되어 사회에 공인으로서 손색이 없으니 계속 정진함이 좋을 듯 합니다. 주변에 지인이 많이 장사에 자신은 있겠으나 하는 순간부터 경할 것이며 부친의 일은 관여는 하겠으나 다른 흐지기 하면서 나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양력11월에 태어났는데 반안살(말안장에 올라탄 듯 편안하고 경매기 없음)의 작용이 암하는군요. 다시 설명하자면 반안 이라 함은 인생의 과정에서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고 마침내 안락한 위치에 도달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머리의 방향을 반안살 방향으로 두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며 금고나 소중한 것을 보관하는 방향도 반안살 방향이 좋습니다. 반안의 기운을 얻기 위해서는 알아두실 것은 삶의 역경은 그 후에 따라오는 편안함과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다소 힘들다하여도 사주의 특징은 편안함과 신뢰이니 음력 8월까지는 견디어 보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8월 18일 (음 7월 23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기회가 왔을 때 잡거라. 60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다소 지연된다. 72년생 자신이 없어도 스스로를 가두지 말라. 84년생 열정을 놓을 큰감이 생긴다.

소 49년생 적당한 거짓말이 필요할 때도 있다. 61년생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날 듯. 73년생 마음에 흔적이 될 일이 생긴다. 85년생 고집 부려서 외톨이 자초하지 마라.

호랑이 50년생 좋은 결을 위해선 손해 감수하라. 62년생 가족이 똘똘뭉쳐 큰 성과를 거둔다. 74년생 무릎기서 승을 찾지 말라. 86년생 생각만 해도 흐뭇한 추억이 생긴다.

토끼 51년생 정열 불태우면 인생도 아름다워진다. 63년생 무언가에 푹 취해 즐거우니. 75년생 부모 우월한 유전자 물려받은 덕 본다. 87년생 이중 잣대로 친구 보지 말라.

용 52년생 좋은 혼잡지 말라. 64년생 갈 길은 먼데 해가 지는 형국이다. 76년생 공문서 관리에 철저히 신경 써라. 88년생 모두 만족하는 신의 한수는 없다.

뱀 53년생 결정은 천천히 할수록 좋다. 65년생 불편한 진실이라고 외면하지 말라. 77년생 술자리가 길면 어이없는 실수한다. 89년생 프러포즈는 다음 기회로 미루라.

말 42년생 시작한 일 마침표 찍어 시원하다. 54년생 둘이 못하는 일감 발견한다. 66년생 상대방 말에서 힌트 잘 파악할 것. 78년생 추진 중인 일에 희망이 보인다.

양 43년생 지내 보니 안 먹도 배가 부르다. 55년생 사탕발림 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 67년생 반대만 하는 상사가 얄밉다. 79년생 습관적 핑계는 무시할 것.

원숭이 44년생 순한 말투의 독설이 더 독한 법. 56년생 근황 마음에 서두르면 더 어려워진다. 68년생 일생의 소지가 있는 공연 뛰자리. 80년생 비밀은 언젠가 탄로가 난다.

닭 45년생 멀리서 반가운 사람이 온다. 57년생 욕심 부려서 속병 앓지 말라. 69년생 너무 신중하면 전진하지 못한다. 81년생 복잡한 문제는 정공법으로 승부 걸어라.

개 46년생 이웃 간에 편가르는 행동 말라. 58년생 아랫사람 칭찬도 좋은 보약이 된다. 70년생 주변의 충고에 귀 기울여라. 82년생 일단 저드 중시자는 마음이 생긴다.

돼지 47년생 근심은 눈 녹듯 사라진다. 59년생 심심할 정도로 편안한 하루. 71년생 재물 등이 저절 덕이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83년생 연인과 변심 사전에 막아라.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아시안 게임'

한국 5회 연속 종합 2위 목표

45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 2014 제17회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개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9월19일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작은 사진)에서 개막해 10월4일까지 16일간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은 36개 종목에 걸쳐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원국 45개국이 모두 출전해 진정한 '아시아의 잔치'로 펼쳐진다.

아시안게임은 1951년 인도 뉴델리에서 처음 열려 이번 인천 대회가 17회째를 맞는다. 우리나라가 하계 아시안게임을 여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86년 서울, 2002년 부산에서 대회가 열렸으며 부산 대회에 이어 12년 만에 다시 아시안게임을 열게 됐다.

이번 대회의 슬로건은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다. OCA 45개 회원국에서 선수 임원 1만 3000여 명, 언론 관계자 7000여 명 등 2만여 명이 참가하고 운영 요원 3만여 명이 대회를 준비했다.

올림픽 종목 28개와 비올림픽 종목인 야구, 볼링, 크리켓, 카바디, 공수도, 세팍타크로, 스쿼시, 우슈를 더해 총 36개 종목에서 금메달 439개가 걸려 있다.

한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종합 2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수영 간판 박태환(25·인천시청·큰 사진)은 자신의 이름을 딴 '문학 박태환 수영장'에서 아시안게임 3연패에 도전한다. 손연재(20·연세대)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 리듬체조 첫 개인종합 금메달을 노린다. 손연재는 광저우 대회에서 한국 리듬체조 첫 개인종합 동메달을 선사한 바 있다.

기계체조에서는 '도마의 신' 양학선(22·한국체대)이 광저우 대회에 이어 아시안게임 2연패에 도전한다.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목에 건 한국 사격의 대들보 진종오(KT·35)는 아시안게임에서는 인연을 맺지 못했던 금메달을 인천에서 수확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인 종목의 스타 선수들과 프로야구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는 야구에 팬들의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북한이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마찬가지로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하면서 아시아를 넘어선 세계적인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다. 북한은 14개 종목에 선수 150명을 포함한 352명의 선수단을 보내겠다는 뜻을 13일 OCA를 통해 알려왔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 금메달 9개를 따내 종합 9위에 오른 북한은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메달 순위 톱 10' 재진입을 노리고 있다.

/정성준기자 jsj@metroseoul.co.kr

LA다저스 주전 줄부상

류현진 이어 유리베까지 이름 올려

내셔널리그 전체 승률 1위를 달리고 있는 LA다저스에 변수가 생겼다.

지난 16일 류현진(27·사진)이 우측 엉덩이 근육 염증으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 하루만에 3루수 주전 유리베(35)도 우측 햄스트링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 등재가 결정됐다.

LA 다저스는 17일 유리베를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메이저리그 공식홈페이지를 비롯한 미국 언론은 이날 일제히 유리베의 부상자 명단 등재 소식을 전했다. 전날 밀워키전에서 6회 수비시 오른 허벅지 통증을 느낀 유리베는 7회 수비시 대수비로 교체됐다. 하루가 지나도 통증이 회복되지 않아 부상자 명단에 오르기로 결정됐다.

유리베는 지난 5월에도 햄스트링으로 한 달 이상 결장한 뒤 6월말에 복귀했다. 정밀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이미 같은 부상으로 30경기 이상을 쉬어야 했던 경험이 있어 이번 부상 공백 역시 짧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류현진 역시 클레이튼 커쇼, 잭 그레인키에 이은 3선발이지만 앞으로 2~3차례는 등판을 쉬어야 할 처지다.

다저스는 16일 현재 70승 54패로 내셔널리그 전체 승률 1위를 달리고 있고 서부지구 2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승차 5.5 게임차로 앞서고 있다. 하지만 선발 한 축이 빠진 데다 베테랑 주전 내야수 유리베까지 다시 공백을 갖게 돼 고민을 안게 됐다.

/정성준기자

판마르베이크 감독과 계약 무산

한달여간 공석이었던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 자리가 예상보다 길어질 전망이다.

유력한 차기 축구대표팀 사령탑으로 거론됐던 베르트 판마르바이크(62·네덜란드) 감독의 한국행이 무산됐다. 대한축구협회는 17일 판마르베이크 감독과의 국가대표팀 사령탑 계약 협상이 결렬됐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는 여러 감독 후보군 중 3명의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협회는 이 중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네덜란드의 월드컵 준우승을 이끌었던 판마르베이크 감독과 우선 협상을 시작했다.

이용수 기술위원장은 이달 초 네덜란드에서 판 마르바이크 감독을 만나 협상을 진행했다.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되는 듯 했지만 연봉, 세금 문제 등 세부 조건에서 이견이 드러나 끝내 한국 대표팀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축구협회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회의실에서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용수 협회 기술위원장이 참석한다.

한편 판마르베이크 감독과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9월 초 열리는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대표팀과의 평가전은 사실상 '임시 사령탑' 체제로 치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성준기자

프로야구 전적 (17일)

■잠실

팀	1~3회	4~6회	7~9회	계
롯데	000	030	001	4
두산	300	010	12X	7

[illegible]

■마산

팀	1~3회	4~6회	7~9회	계
한화	000	000	030	3
N C	020	000	02X	4

[illegible]

프로축구 전적 (17일)

홈	득점	득점	원정
전남	3	1	수원

[illegible]

홈	득점	득점	원정
성남	2	4	부산

[illegible]

홈	득점	득점	원정
상주	1	3	경남

[illegible]

기성용 한국인 최초 EPL 개막골

"주전 자리 확보해 팀 도움 되고 싶다"

기성용(25·스완지시티·사진)이 2014~2015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첫 골의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리며 화려하게 시즌을 시작했다.

기성용은 16일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와의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에 선발 출전해 전반 28분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첫 경기이자,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각 국 주요 리그에 앞서 가장 먼저 시작돼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기성용은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터뷰를 통해 "득점하지 1년을 넘게 기다렸다"며 "팀에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 외에 다른 느낌은 없다"고 말했다.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에서 뛰던 그는 2012년 8월 스완지시티로 이적했으나 골을 넣지는 못했다.

2012~2013시즌 프리미어리그 29경기에 출전했으나 득점을 올리지 못한 기성용은 지난 시즌 선덜랜드로 임대됐다가 올해 스완지시티로 돌아와 드디어 첫 골을 신고했다.

기성용은 "스완지시티에 복귀한 만큼 주전 자리를 확보해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며 "말을 넣고 나서 여러 감정이 느껴졌으니 우선 경기에 전념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스완지시티는 이날 기성용 외에 1골 1도움을 기록한 길피 시구르드손의 활약을 앞세워 2-1로 이겼다.

기성용은 "우리가 이길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없었겠지만 우리 선수들은 충분히 승리할 자격이 있었다"고 기뻐하며 "수비가 탄탄했고 역습 과정에서 득점으로 연결됐다"고 승리 요인을 분석했다.

/정성준기자

전 남편의 결혼식,
하늘에서 시체가 떨어졌다!
tvN 월화드라마
마이 시크릿 호텔
my secret hotel
킬.링.로.맨.스
연출 홍종찬 극본 김도현 | 김예리
오늘 밤11시 tvN 첫방송